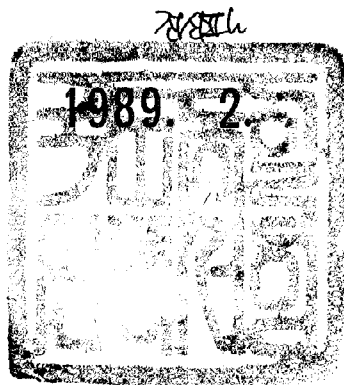


~~對 外 秘~~
1992. 12. 31 까지

管理 番號	
----------	--

15

70年代 南北對話 成立 秘史(I)



[Faint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國 土 統 一 院
南 北 對 話 事 務 局

本冊子는 當院에서 既 發刊한(1987.9)「南北對話史料集」(全14卷)에 收錄되지 않은 70年代初 南北對話 成立秘史 部分으로, 當時 政策 決定過程에 直接 參與하였던 人士들이 執筆한 內容을 整理하여 向後 南北對話政策 立案時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爲해 製作된 것입니다.

경 고 문

본 책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상 중요한 비밀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관계법 규에 의거 조치됨.

1. 관계자 외 열람 및 취급을 금함.
2. 복제 및 복사를 금함.
3. 직접적인 인용 및 공표를 금함.

《 目 次 》

I. 「 8.15 」平和統一構想 宣言의 立案斗 發表經緯 ……………	3
--------------------------------------	---

康仁德(極東問題研究所 所長)

II. 「 8.12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의 背景斗 立案過程 ……	23
--	----

池珠善(國際問題調查研究所 所長)

〈附 錄〉

1. 「 8.15 」平和統一構想 宣言 關聯資料 ……………	39
---------------------------------	----

2. 「 8.12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 關聯資料 ……………	69
-------------------------------------	----

I. 「8.15」平和統一構想 宣言의 立案과 發表經緯

〈目 次〉

1. 「8.15宣言」의 立案經緯	5
2. 1970年 當時의 國內外 情勢	8
가. 周邊情勢	8
나. 南北韓 關係의 特徵	11
다. 國內情勢	14
3. 「8.15宣言」의 採擇過程	15
4. 「8.15宣言」에 대한 北韓의 反應	20

1. 「8.15宣言」의 立案經緯

1970年 8月 初旬(아마도 8月1日이었을 것이다)으로 記憶이 된다. 그 날은 土曜日이었다.

當時 靑瓦臺 代辯人으로 있던 姜尙郁 公報首席秘書官으로부터 電話를 받았다. 用件은 간단하여 자기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姜代辯人은 『國際政治나 北韓問題에 조예가 있는 분을 모시고 와주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었다.

當時 나는 必要한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10여명의 教授와 항시 연락을 갖고 있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다가 土曜日 午後라 집에 계신 분이 얼마 안되어 서울大學의 孫製錫教授와 한국일보의 朴東雲 論說委員 두분과 접촉하여 함께 가기로 했다.

姜尙郁 代辯人의宅은 면목동이었다. 저녁 6時頃 우리 세사람은 함께 姜代辯人宅에 到着했다.

그리하여 姜代辯人宅에서 當時 外務部次官이던 尹錫憲氏 그리고 靑瓦臺 公報秘書이던 沈濼澤秘書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國際情勢와 北韓情勢에 대한 隔意없는 討論을 展開하였는데, 주로 앞으로의 變化에 대한 것이 焦點이었다.

當時의 國際情勢는 美國의 新 行政府인 닉슨政府가 등장하여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直後인지라 이 문제를 中心으로 論議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연히 베트남戰爭을 圍繞한 아시아情勢, 中·蘇對立 問題, 악화되는 國際輿論에 따른 美國의 對「베트남」 정책의 추이, 그리고 68年 1月の 1·21事態와 「푸에블로」號 被拉, EC121 美偵察機 격추 이후 계속 격화되고 있는 北韓의 對南戰略 등에 集中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견교환이 2時間 이상 계속된 후 자리를 옮겨 응접실에서 계속했다. 밤 10時가 훨씬 넘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姜代辯人은 비로소 오늘 저녁 모임의 本題를 提示했다. 그것이 바로 『8·15 解放 25周年을 맞이하는 이 時期에 大統領이 統一에 대한 대담한 構想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朴正熙大統領은 이번 8·15 解放 25周年을 期해 자신의 이러한 構想을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大統領의 構想에 따라 靑瓦臺 實務陣은 8·15 25周年 演說文을 起草하여 鎭海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大統領에게 보냈는데, 大統領은 좀더 대담한 내용을 包含시키라는 分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날의 저녁 모임은 8·15 解放 25周年을 기념하여 발표할 大統領의 對北方政策을 정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同席했던 參加者들은 이에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까지 주고 받은 意見을 中心으로 演說문이 作成되면 좋을 것이라는 意見一致를 보았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나왔다.

그런데 姜代辯人이 밖으로 나오는 나를 좀 보자고 하기에 잠깐 서 있었더니 朴正熙 大統領에게 보냈던 演說草案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밤중에 읽어 보고 修正할 것이 있으면 손질을 해도 좋으며 내일 午後 1時頃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다.

나는 같이 갔던 孫製錫教授와 朴東雲 論說委員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곧 半島호텔로 갔다. 거기에는 내가 수시로 사용하는 2個의 房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子正이 지나 호텔에 도착했기 때문에 두 분께는 우선 다른 방에서 목욕이나 하고 쉬도록 말씀드리고 오늘 밤 내가 一次로 修正하고 내일 아침 그 修正案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두 분을 다른 방으로 안내한 후 곧 나 혼자서 大統領의 演說草案을 검토하게 되었다.

靑瓦臺 公報秘書室에서 作成한 演說文은 과거 大統領 自身이 數次 表明했던 統一路線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朴正熙 大統領의 統一路線은 한마디로 「先建設 後統一」이었다. 共產主義者들이 힘의 論理에 서서 革命을 企圖하는 限 이를 억제하는 우리의 힘이 없이는 統一論議는 위협천만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革命企圖를 억제하고 이를 포기시킬 수 있을 때 自由民主主義的 統一을 期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信念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은 1968年 1月 1日 그의 新年辭에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至上目標는 分斷된 國土의 再統一입니다. 祖國의 近代化는 우리의 中間目標이며 經濟發展은 우리의 當面課題입니다. 經濟發展을 촉진하여 祖國을 하루속히 近代化하고 그 터전 위에 民族統一을 위해 躍進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뚜렷한 前進目標입니다. 지금은 그 확실한 準備期間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祖國近代化」가 이룩되기 전까지는 統一問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時機尙早라는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찌하여 보다 적극적인 統一意志를 表明하려 하는가? 自身の 생각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기본적인 생각은 그대로 두고 變化된 國內外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때문인가?

이 문제는 이미 姜尙郁 代辯人 宅에서의 討論過程에서 結論이 나 있었다.

그것은 大統領의 基本構想에는 變化가 없지만 南北韓關係나 國際情勢가 急變하고 있으니 이제는 守勢的인 位置에서가 아니라 攻勢的인 位置에서 積極的인 統一意志를 表明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0年 당시의 國內의 政세에 비추어 볼 때 朴正熙 大統領이 『보다 積極的인 統一意志를 表明해야 하겠다』고 判斷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하 당시의 國內外 情勢를 간략히 記述하기로 한다.

2. 1970年 當時의 國內外 情勢

가. 周邊情勢

당시 우리나라는 美國과 함께 「베트남」派兵 中에 있었다.

60餘萬의 韓·美 精銳部隊와 想像할 수 없는 막대한 軍需支援에도 不拘하고 正統性이 없고 腐敗한 사이공政府에 대한 國民의 支持는 더욱 감소되었다. 게다가 世界 進步的 言論은 물론 美國內 報道媒體들도 이 전쟁에 대한 展望을 悲觀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美國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反베트남 戰爭 示威가 계속되고 있었다.

1970年 1月 20日 出帆한 닉슨政府로서는 어떤 문제보다 優先하여 베트남問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一環으로 提示된 것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팜 독트린)이다.

1969年 7月 25日 아시아巡訪에 출발한 닉슨大統領은 峇島에 기착하여 記者會見을 가진 바 있는데 이 때 그는 자신이 이끄는 美 行政府의 對아시아 基本政策을 다음 세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 (1) 美國은 이미 체결한 條約上의 모든 義務를 遵守한다.
- (2) 核兵器에 의한 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이 직접 防禦措置를 취한다.
- (3) 在來式 兵器에 대한 攻擊 또는 國內의 反亂의 경우는 아시아諸國 자신들이 自主的인 防衛力을 強化하여 對處토록 한다.

이 3個原則은 그해 11月 3日 닉슨大統領의 연설에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化」로 정리되었다.

닉슨大統領의 아시아巡訪과 병행하여 7月 31일부터 8月 1일까지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直接 「닉슨 독트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닉슨 독트린」은 第2次 世界大戰 이후 줄

이하 당시의 國內外 情勢를 간략히 記述하기로 한다.

2. 1970年 當時의 國內外 情勢

가. 周邊情勢

당시 우리나라는 美國과 함께 「베트남」派兵 中에 있었다.

60餘萬의 韓·美 精銳部隊과 想像할 수 없는 막대한 軍需支援에도 不拘하고 正統性이 없고 腐敗한 사이공政府에 대한 國民의 支持는 더욱 감소되었다. 게다가 世界 進步的 言論은 물론 美國內 報道媒體들도 이 전쟁에 대한 展望을 悲觀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美國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反베트남 戰爭 示威가 계속되고 있었다.

1970年 1月 20日 出帆한 닉슨政府로서는 어떤 문제보다 優先하여 베트남問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一環으로 提示된 것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팜 독트린)이다.

1969年 7月 25日 아시아巡訪에 출발한 닉슨大統領은 峇島에 기착하여 記者會見을 가진 바 있는데 이 때 그는 자신이 이끄는 美 行政府의 對아시아 基本政策을 다음 세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 (1) 美國은 이미 체결한 條約上의 모든 義務를 遵守한다.
- (2) 核兵器에 의한 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이 직접 防禦措置를 취한다.
- (3) 在來式 兵器에 대한 攻擊 또는 國內의 反亂의 경우는 아시아諸國 자신들이 自主的인 防衛力을 強化하여 對處토록 한다.

이 3個原則은 그해 11月 3日 닉슨大統領의 연설에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化」로 정리되었다.

닉슨大統領의 아시아巡訪과 병행하여 7月 31일부터 8月 1일까지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直接 「닉슨 독트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닉슨 독트린」은 第2次 世界大戰 이후 줄

곧 世界警察軍의 役割을 담당했던 美國이 더 이상 海外에서의 過剩 介入을 하지 않겠다는 公式의 意志를 表明한 것이었다.

이 선언의 초점은 美國에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厭戰무드가 더 이상 확대되기 이전에 「베트남戰爭의 永續化」에 종지부를 찍고 가능한 빠른 時間內에 美國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停戰協定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닉슨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선 外交的인 面에서 「파리會談」을 확대시키면서 休戰交渉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한편 軍事面에서의 「베트남化」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1969년 5월 14일 닉슨大統領은 「美軍과 北베트남軍의 同時撤收」 등의 8個項과 「南베트남에서의 自由選舉實施」 등의 7개항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제안은 곧 지금까지의 베트남政策을 修正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69년 2월 절정에 달했던 54萬 3,054名의 美軍 중 6월 8日 2萬 5,000名을 철수한다고 공표하였다. 9월 16日 다시 3萬 5,000名, 12월 15日에는 5萬名을 철수하여 70년 4월 15日까지는 43萬 4,000名으로 감소시켰다.

그렇다고 하여 「擴大파리會談」이 큰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진행되었다. 어쨌든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政策에서 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닉슨 독트린」은 중공에 대한 政策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就任 直後인 69년 1월 29日 닉슨大統領은 기자회견에서 『中共側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美國의 政策變化는 있을 수 없다』고 斷言한 바 있었는데, 同年 8월 로저스 美國務長官은 「캔버라」에서의 발언에서 『우리들은 中共을 거대한 파워(Power)라고 얘기해 왔지만 우리는 이 파워를 現實的인 것이라기보다 潛在的인 파워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는데 이 뜻은 닉슨政權이 中共을 아시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自律的 秩序의 成立」을 구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리하여 1968年 1月 이후 중단되었던 「바르샤바(Warsaw) 美·中共 大使會談」이 1970年 1月 20日 다시 시작되었다. 이처럼 「닉슨 독트린」은 1970年初부터 對베트남政策과 對中共政策의 修正으로 나타났다.

한편 韓半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中·蘇關係도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1969年 3月 2日에 발생한 珍寶島事件(蘇聯名:「다만스키」섬 사건)이 있다.

이미 中·蘇 兩國間에는 文化大革命을 계기로 雙方 大使가 撤收하여 緊張關係가 계속되던 때였지만 이 事件을 계기로 兩國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珍寶島는 中·蘇間의 國境을 이루는 「우수리」江 中洲의 작은 섬이지만 이 섬의 領有權을 圍繞하여 兩國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蘇聯軍 31名이 死亡하고 14名이 重傷을 입었으며 中共軍도 多數의 死傷者를 냈다.

동년 3月 15日에는 第2次 珍寶島事件이 發生하여 蘇聯側은 大領級 將校를 包含하여 12名의 戰死者가 發生하였다.

이 地域에서의 紛爭은 7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5月 이후에는 小規模 紛爭이 新疆省의 中·蘇 國境에서도 일어났다. 8月 13日 中共의 裕民縣(新疆省)의 「테레크치」 지구(소련측 「세미파란친스크」州)에서는 헬리콥터와 戰車·裝甲車가 動員되는 대규모 戰鬪가 展開되었다.

이와같은 中·蘇間의 武力衝突의 발생은 美·中共間의 關係를 전환시키고 나아가 東北亞地域에서의 美·中·蘇 強大國間의 三角構圖에 큰 變化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특히 베트남 休戰交渉이 進展된다면 韓·美 兩國軍의 철수문제는 具體的 日程에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베트남派遣을 條件으로 形成되 있는 韓·美關係에도 새로운 變化가 있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조짐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美國은 駐韓美軍의 削減을 公式論議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4月 10日 確定된 1970 會計年度의 對韓 軍事援助額은 69년에 비해 3,000萬달러가 삭감된 1億 4,049萬달러였다.

美國의 駐韓美軍 削減決定은 5月 19日 애그뉴副統領(Spiro T. Agnew)의 TV 發言에서 公言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7月6日 포터 駐韓 美大使(William P. Porter)는 丁一權 國務總理에게 公式으로 通告하게 되었는데 減수규모는 約 2萬名이었다.

이처럼 69年과 70年 7月 사이에 周邊情勢는 급격한 變化를 나타냈다. 이러한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朴大統領은 새로운 出口를 찾아야 했으며 그것이 對北方政策의 變更으로 表明되게 된 것이다.

나. 南北韓 關係의 特徵

한편 1970年이라는 時期는 南北韓 關係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時期였다 할 것이다.

「先建設 後統一」 原則을 提示하고 全力을 「祖國近代化」에 集中시킨 朴正熙 大統領으로서는 이 時期에 이 原則의 正當性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1967年에 시작된 第2次 5個年計劃은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69年에는 史上 최고인 成長率인 15.9%를 기록했다. 部門別 成長率을 보면 第1次產業이 11.9%, 第2次產業이 21.0%, 第3次產業이 15.6%였는데 그 중에서도 製造業은 무려 22.3%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했다. 그 결과 GNP는 經常市場價格으로 2兆 301 億원, 65年度 不變市場價格으로 1兆 3,020億원으로 成長하여 1人當 GNP가 164.7달러에서 68年에는 195.0달러로 높아졌다. 이로써 南北間의 經濟力은 우리 側이 2倍로 우세하게 되었다.

當時 國內 情報機關이 分析한 南北韓 GNP 比較는 1967年 우리側 42億8,000 萬달러 對 北韓 26億달러, 1968年 52億 1,000萬달러 對 29億 8,000萬달러, 69年 66億 2,000萬달러 對 31億 2,000萬달러, 70年에 78億 3,000萬달러 對 39 億 8,000萬달러로 69年을 고비로 南韓이 北韓의 2倍를 上廻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高度經濟成長의 原動力으로서 왕성한 投資意慾과 急速한 輸出增加를 達成하였다.

물론 急速한 高度成長에 따른 副作用도 적지 않았다.

우선 國際收支의 不安이 있었다. 1969年 貿易收支는 輸出 6億 2,252萬달러에 비해 輸入이 18億 2,361萬달러로 12億 110萬달러의 赤字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貿易赤字는 外資導入과 베트남特需 그리고 對UN軍 去來로 메워졌다. 이에 따라 外換保有高는 漸增하여 1969년에는 5億 4,947萬달러에 達했다. 이외 借款元利金の 償還負擔增加, 輸入原資材價 引上에 의한 수출둔화, 物價上昇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朴正熙 大統領으로서는 貿易收支 赤字가 投資增大에 기인한 만큼 몇년내에 貿易立國에 의한 自立的 經濟基盤 구축을 자신하고 있었다.

반면 北韓의 경우는 1961년에 시작한 第1次 7個年計劃이 그 시작부터 중대한 압초에 부딪쳐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다. 中·蘇 對立의 와중에서 소련을 등지고 親中共으로 傾斜한 것을 이유로 蘇聯은 북한에 대한 經濟支援을 全面 中斷하였는데다가, 쿠바事態를 계기로 1962年 「4大軍事路線」을 推進하여 北韓의 經濟는 深대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1964年 흐루시초프의 退陣으로 蘇聯과의 和解可能性이 생기고 1965年 2月 코시긴 蘇聯首相이 하노이를 방문하고 歸路에 平壤에 들러 中斷했던 支援再開를 약속한 바 있지만, 蘇聯의 援助는 좀체로 正常化되지 않았다. 1966年 8月 北韓이 對中共傾斜에서 벗어나는 信號로 「自主性を 옹호하자」는 로동신문 論說이 발표되지만 예정했던 1次7個年計劃의 遂行은 이미 시기적으로 不可能한 狀態였다. 때문에 北韓은 67年 目標年度를 3年 延長하여 1970년까지 계속하였다.

이처럼 南北間의 經濟力이 逆轉된 것을 확인하자, 朴正熙 大統領은 상당한 自信感을 가지고 對北政策을 展開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朴正熙 大統領의 對北政策의 基調 「先建設 後統一」에 대한 批判의 視角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특히 美國의 學者들은 朴大統領이나 金日成 共히 이데올로기와 統一의 關係를 名分으로 自身の 獨裁權力을 強化하고 있다는 評價를 내리고 있었다.

1967年 봄이나 여름으로 記憶된다.

필자는 金炯旭 當時 中央情報部長으로부터 美國務省 委囑教授團이 作成한 文書 하나를 傳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內容은 中國, 獨逸, 韓半島, 베트남 등 分斷國家의 現況·問題點 그리고 앞으로의 美國의 政策方向을 記述한 것이었다. 이 研究에 參與한 教授들은 自他가 共認하는 美國의 著名한 教授들로서, 20餘名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韓半島問題에 대해서는 그레고리·헨더슨이 中心이었다.(이 研究書도 卽刻 翻譯하여 上報하였다)

筆者는 이 研究報告書에서 세가지 重要한 指摘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 韓半島의 南北을 支配하는 朴正熙와 金日成은 共히 이데올로기를 自身의 政權強化에 利用하고 있다. 金日成은 共產主義를, 朴正熙는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한다는 名分하에 敵對的 對決意識을 鼓吹하고 있는데 이것이 南北韓의 緊張激化의 原因으로 되고 있다.

둘째, 美國은 中·蘇兩國과 協調하여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한 長期對策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美國은 對韓軍援을 감축하여야 하며 우선 美國이 韓國에 提供키로 한 「팬텀戰鬥機」를 供給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中·蘇 兩國이 對北軍援을 삭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中蘇兩國이 對北影響力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美·中·蘇間의 3個國 關係가 改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美國은 우선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期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期間은 대체로 10年~15年이 걸릴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었다.

筆者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 되었을 때 바로 이 文書가 서서히 實現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듯 1970년 당시의 南北韓關係는 朴正熙 大統領이 豫見했던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었지만, 反面 강력한 그의 後見勢力이던 美 行政府의 태도는 그의 요구와는 달리 步調의 不一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다. 國內情勢

1970年 8月 當時의 國內情勢는 3選改憲으로 惹起되었던 反 朴正熙 勢力의 反撥이 다시금 재연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왜냐하면 1971년에 실시될 大統領 選舉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9年 10月 17日 실시된 「3選改憲」 國民投票는 贊成 661万 5,000표, 反對 315万 7,000표로 全體 投票의 65%를 획득하였지만 이것은 現職 大統領이라는 강점과 함께 막대한 資金力, 組織力, 그리고 行政力을 총동원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당시 朴大統領은 3選改憲의 名分으로 北韓挑發의 沮止, 祖國近代化의 達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리더쉽의 필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選改憲의 이유에 대하여 野黨과 學生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反 朴正熙 勢力의 주장은 3選改憲은 朴政權이 獨裁와 腐敗로 가는 길이며, 國家非常時라면 國論을 分裂시키는 改憲을 할 것이 아니라 平和的 政權交替를 통해 民主主義를 확립하고 國力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反駁하였다.

한편 3選改憲의 反對勢力은 野黨이나 在野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與黨인 共和黨內에서는 大權을 노리는 金鍾泌 勢力이 이에 반발하였다. 궁극에 가서는 共和黨內의 反撥勢力이 改憲支持勢力과 妥協하여 改憲의 國會發議도 可能하게 되었고, 國民投票의 過半數 支持票를 獲得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黨에 대한 政府의 絕對優位는 더욱 強化되고 國會의 侍女化는 더욱 促進되어 이에 대한 不滿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狀況속에 71年の 大統領選舉를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朴大統領의 再選은 거의 確固한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長期執權을 위해서 國內體制의 再整備가 必要하며 보다 強力한 指導者로서의 자기 모습(이미지)을 구축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統一問題 論議의 「이니시어티브」를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였다.

기왕에 제시한 「先建設 後統一」原則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있는 統一方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柔軟性を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基盤確保야말로 反獨裁 民主化를 名分으로 하는 反 朴正熙 勢力에 대한 伸縮性있는 對應(統制의 強化·또는 緩和의 變容)을 가능케 하는 與件이었다.

이와같은 當時의 國內情勢가 朴正熙 大統領으로 하여금 大담한 對北提案을 提起할 決心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3. 「8.15宣言」의 採擇過程

筆者는 위에서 論한 當時의 國內外 情勢를 念頭に 두고 靑瓦臺에서 作成한 演說草案을 檢討하였다.

靑瓦臺에서 作成한 最初の 演說文을 正確히 記憶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先建設 後統一」論理를 一貫性있게 기술하였을 뿐 특별히 새로운 提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善意의 경쟁,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하는 文句가 있어, 이것을 主題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필자는 위 文句를 大統領이 생각하는 積極的인 對北提案을 象徵하는 用語로 해석하고 가능한 靑瓦臺에서 작성한 構造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對北提案을 插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加筆에 着手하였다.

기왕의 靑瓦臺 草案은 3個 部分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첫째 部分은 해방이후 25年間の 回顧, 둘째 部分은 지금까지 統一을 成就하지 못한 原因(말할 필요도 없이 北韓의 反民族的·反統一的 犯行 糾彈), 그리고 세번째 部分이 統一을 위한 國民의 새로운 決意의 促求(先建設의 強調)였다.

기왕에 제시한 「先建設 後統一」原則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있는 統一方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柔軟性を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基盤確保야말로 反獨裁 民主化를 名分으로 하는 反 朴正熙 勢力에 대한 伸縮性있는 對應(統制의 強化·또는 緩和의 變容)을 가능케 하는 與件이었다.

이와같은 當時의 國內情勢가 朴正熙 大統領으로 하여금 大담한 對北提案을 提起할 決心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3. 「8.15宣言」의 採擇過程

筆者는 위에서 論한 當時의 國內外 情勢를 念頭에 두고 靑瓦臺에서 作成한 演說草案을 檢討하였다.

靑瓦臺에서 作成한 最初의 演說文을 正確히 記憶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先建設 後統一」論理를 一貫性있게 기술하였을 뿐 특별히 새로운 提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善意의 경쟁,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하는 文句가 있어, 이것을 主題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필자는 위 文句를 大統領이 생각하는 積極的인 對北提案을 象徵하는 用語로 해석하고 가능한 靑瓦臺에서 作成한 構造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對北提案을 插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加筆에 着手하였다.

기왕의 靑瓦臺 草案은 3個 部分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첫째 部分은 해방이후 25年間の 回顧, 둘째 部分은 지금까지 統一을 成就하지 못한 原因(말할 필요도 없이 北韓의 反民族的·反統一的 犯行 糾彈), 그리고 세번째 部分이 統一을 위한 國民의 새로운 決意의 促求(先建設의 強調)였다.

따라서 筆者가 加筆해야 할 部分은 두번째 部分이었다. 具體적으로 말한다면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반드시 解決해야 할 問題, 北韓側이 同意해야 할 문제들 大膽하게 提起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힘이 北韓의 힘을 능가하는 위치에 올라선 이상 보다 大膽한 제안, 명백히 말하면 交流提案을 提示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南北韓의 平和共存이 實現되어야 하며 不信을 제거하고 民族의 번영을 위한 南北間의 交流를 進行하면서 『어느 體制가 보다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體制인가를 國民이 심판토록 하자』는 內容을 담았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經濟交流, 文化交流, 스포츠交流, 書信交流 등 全面的인 交流를 모두 記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靑瓦臺案의 앞·뒤 부분은 거의 原文대로 살려 加筆을 끝낸 것이 아침 7時頃이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인 후 孫製錫教授와 朴東雲先生을 모시고 午前中 文句의 整理·修正作業을 끝냈다.

우리가 修正한 草案은 午前 12時~午後 1時頃 半島호텔에 온 姜代辯人과 沈秘書官에게 提示하였다. 함께 精讀한 姜代辯人은 대단히 滿足하는 것 같았으며, 곧 整理하여(大統領의 演說文體로 再作成하여) 즉시 鎭海로 보내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內心, 『8·15演說이 이제 겨우 草案이 완성되었으니 저 草案이 再作成되어 鎭海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印刷가 되어 배포하자면 상당히 바쁘게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어떻든 우리의 責任은 일단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방을 나섰다. 마침 停電이 되어 非常階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盧信永 先輩(당시 로스앤젤레스 總領事로 기억된다)를 만나 함께 내려왔다.

그후 一週日 程度 지났다. 나로서는 大統領의 8·15연설에 대해서는 거의 잊은 상태였다. 그런데 8月 9日 (또는 10日) 아침 出勤 直後 갑자기 部長(當時 金桂元氏)의 呼出을 받았다. 나는 평시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호출이라

생각하고 남방서츠 차림으로 南山本部의 部長室로 갔다. 그랬더니 金桂元部長이 자기와 함께 靑瓦臺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미 部長에게 大統領의 8·15演說文 草案 作成過程에 대해서는 報告를 했던 터이라 별달리 준비할 것도 없었다.

靑瓦臺 金正廉 秘書室長室에 도착한 것이 10時 半頃이었다. 秘書室長室에는 金永善 統一院長官과 尹錫憲 外務部次官이 와 있었고, 곧이어 姜尙郁 代辯人이 演說文 草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秘書室長을 中心으로 소파에 둘러 앉아 한구절 한구절 討議하기 始作하였다.

이 草案은 이미 대통령께서 읽어 본 것인데 다시 검토해 보라는 下命이 있어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얼마전 우리가 作成했던 演說草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고, 한편 統一院長官이나 外務部次官은 이 연설문을 처음 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統一院長官은 크게 難色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外務部次官은 다소 異意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에 異意를 제기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내가 金桂元部長에게 『우리는 內政과 外政을 동시에 取扱하고 있으니 이 연설문에 대해서는 中立的 態度를 취합시다』라고 건의했던 것을 미루어 그렇게 생각된다.

이 演說文에 대해서는 주로 姜尙郁 代辯人이 說明을 하였다. 金永善長官은 姜代辯人의 말에 적극 呼應하였다. 이렇게 열띤 토의가 오전 중 계속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靑瓦臺食堂에서 곰탕을 가져와 다 함께 먹은 후 설새없이 다시 討議가 계속되었다. 午後 4時 이후로 생각되는데 大統領께서 모든 討議 參加者들을 執務室로 불렀다. 나는 남방서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執務室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下命이 있기에 부득이 들어가 뒷 자리에 앉았다.

잠시후 李滌 法務部長官 一行이 大統領執務室로 들어왔다. 李法務는 申植秀 檢察總長, 한옥신 檢事, 李鍾元 檢事, 최대현 檢事 등 당시 쟁쟁한 公安檢事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大統領은 이미 이 演說文에 담긴 對北提議에 대한 法的 解釋을 法務部에 下命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한 報告次 李法務 一行이 들어온 것이었다. 大統領께서는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았고 10餘名の 關係長官과 一行은 자유롭게 둘러앉았다.

大統領께서 法務部の 見解를 물으셨다. 李濞長官은 한마디로 演說文에 담긴 南北交流 提議는 「憲法上 統治權의 범위를 넘는 것」임을 進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李鍾元 檢事에게 설명토록 하였다. 李檢事는 2~30分 조목조목 따져 法的 異意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要旨는 이 演說文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前提下에 提案한 것이므로 憲法에 違背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法務部の 法的인 異意提起에 대해 뚜렷하게 反論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當時의 南北關係는 아직 和解나 交流를 제의할 정도로 情勢가 造成되 있지 않았다.

1968年 1·21事態, 곧이은 푸에블로號 사건, 同年 10月の 울진·삼척사건, 69年 4月の EC121 美偵察機 격추사건, 70年 4月の 周恩來의 平壤訪問과 강력한 反美·日 糾彈聲明의 發表, 그리고 계속적인 무력도발이 恣行되던 時期였다. 더구나 美國이 駐韓美軍의 철수를 公式 通告했던 時期였다. 이러한 時期에 國民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대담한 對北提案을 發表한다는 것은 時期的으로 不適當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國內治安을 擔當하는 部署에서는 이런 제안을 환영할 까닭이 없었다.

결국 大統領 自身도 政治的으로는 대담한 제의를 내놓아야 할 時期라고 생각하면서도, 國內體制가 아직도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생각을 후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토의가 시작된지 1時間쯤 지나서 大統領은 直接 演說草案을 修正하였다. 그리고 나서 修正한 부분을 李濞 法務 一行에게 보여주었다. 律士 一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朴大統領은 『靑瓦臺 秘書陣과 中央情報部는 各界 指導

級人士에게 이 演說文의 趣旨를 說明하고 理解시키도록 하라』고 下命하였다. 이리하여 演說文의 인쇄·배포와 각계 인사에 대한 事前 브리핑을 中央情報部가 담당하게 되었다.

완성된 演說文 草案은 곧 나에게 돌아왔다. 金桂元部長은 나에게 『時間이 促迫하여 곧 里門洞 部 印刷所에서 인쇄할 것과 내일 아침부터 브리핑을 하도록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演說文은 곧 部 印刷所에서 돌려졌고 中央情報部 國內담당 부서에서는 招請 對象者를 選定하여 브리핑 시간계획을 作成하게 되었다.

완성된 演說文은 當初 우리들이 包含시켰던 具體的인 南北交流 提案은 完全히 削除되었고 다음과 같이 修正되었다.

『(前略) …… 나는 光復 4半世紀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方法에 관하여 나의 構想을 밝히려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先行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즉, 北韓 共產集團이 지금과 같은 侵略的이며 挑戰的인 行爲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假面이요, 偽裝이요, 欺瞞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緊張狀態의 緩和 없이는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의 接近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이를 保障하는 北韓共產集團의 明確한 態度 表示와 그 實踐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裝共匪 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卽刻 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武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企圖해 온 從前의 態度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것을 明白하게 內外에 直言하고, 또한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共產集團이 受諾·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 明白하게 確認될 境遇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 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평화를 위한 UN의 努力을 認定하고 UN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UN에서의 韓國문제 토의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後略)』

결국 「劃期的인 提案을 提示할 用意」를 밝혔을 뿐 그 用意의 구체적인 內容은 모두 빠져 나간 것이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의 參加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UN에 대한 從前의 政策을 轉換시킬 것임을 明白히 하였고, 이러한 示唆를 통해 「획기적인 제안」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善意의 競爭,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를 없는가』를 물음으로써 우리의 平和意志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8·15宣言」이 있었기에 우리政府는 다음해 8월 12日 「이산가족 찾기 赤十字會談 開催提議」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8·15宣言은 對北政策을 轉換하는 하나의 分水嶺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8.15宣言」에 대한 北韓의 反應

나는 靑瓦臺會議가 끝난 그 時刻부터 8·15 紀念行事가 끝날 때까지 거의 兪새없이 시간에 쫓겼다. 왜냐하면 大統領께서 下命한 各界各層의 指導者와의 懇談會를 도맡아 實施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점심, 저녁 食事時間을 利用하여 言論界, 宗教界, 豫備役 將星 또는 大學 總·學長 또는 教授와의 會晤를 가지면서 8·15演說의 趣旨를 說明하였다.

당시 내가 행한 브리핑의 要旨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 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평화를 위한 UN의 努力을 認定하고 UN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UN에서의 韓國문제 토의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後略)』

결국 「劃期的인 提案을 提示할 用意」를 밝혔을 뿐 그 用意의 구체적인 內容은 모두 빠져 나간 것이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의 參加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UN에 대한 從前의 政策을 轉換시킬 것임을 明白히 하였고, 이러한 示唆를 통해 「획기적인 제안」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善意의 競爭,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를 없는가』를 물음으로써 우리의 平和意志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8·15宣言」이 있었기에 우리政府는 다음해 8월 12日 「이산가족 찾기 赤十字會談 開催提議」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8·15宣言은 對北政策을 轉換하는 하나의 分水嶺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8.15宣言」에 대한 北韓의 反應

나는 靑瓦臺會議가 끝난 그 時刻부터 8·15 紀念行事가 끝날 때까지 거의 쉴새없이 시간에 쫓겼다. 왜냐하면 大統領께서 下命한 各界各層의 指導者와의 懇談會를 도맡아 實施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점심, 저녁 食事時間을 利用하여 言論界, 宗教界, 豫備役 將星 또는 大學 總·學長 또는 教授와의 會晤를 가지면서 8·15演說의 趣旨를 說明하였다.

당시 내가 행한 브리핑의 要旨는

- (1) 南北間의 經濟力이 逆轉되어 우리가 優勢한 位置에 올라섰다는 것
- (2) 美軍의 撤收에 따라 弱化되는 우리 防禦力量을 外交的인 手段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
- (3) 反帝·反植民地 鬭爭을 標榜하며 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에의 進出을 劃策하는 北韓의 企圖를 沮止하기 위해서는 國際社會에 우리의 平和指向 政策을 誇示해야 한다는 점
- (4) 「닉슨 독트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對亞細亞政策이 크게 전환하고 있으므로 統一問題의 民族內部化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
- (5) 그렇다고 하여 8·15宣言이 우리의 對北政策路線의 本質的 變化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혔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되는 것은 南山에 있는 舊廳舍(이미 없어졌음) 部長室에서 言論界 代表에게 브리핑 했을 때 예상외로 朝鮮日報의 崔錫采 先生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만큼 當時로서는 8·15宣言 내용만으로도 놀라는 분이 많았다.

8月 15日 大統領의 演說이 시작되는 그 시각에는 미리 KBS TV에 事前計劃을 마련하여 연설이 끝나자 卽刻 教授 對談(解說)이 始作되도록 計劃하였다.

8·15演說은 곧 「8·15宣言」으로 命名되었다. 世界各國의 反應은 대단히 컸다. 西方側 反應은 肯定的인 것이었고, 共產圈 反應은 懷疑的인 것이었다.

8·15宣言이 발표되면 즉각 北韓의 反應이 있으리라 豫想했었는데 의외로 北韓의 公式反應이 없었다. 一週日후인 8月 22日 1萬餘字에 달하는 長文의 北韓反應이 發表되었다. 「로동신문」社說 形式의 反應이었다.

그 要旨은 『朴政權과는 어떠한 統一論議도 할 수 없으며 南韓政權이 民主的인 人民政權으로 交替되면 그때 가서 統一論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北韓은 우리의 提議를 全面 拒否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側이 變化하는 國際情勢를 正確히 豫測하고, 積極的인 攻勢를

편 데다가 實質的으로 우리 體制의 優越性이 經濟成長을 통해 확인되던 時期에 이 宣言이 發表되었기 때문에 相當한 衝擊을 받은 것이다.

이때부터 統一問題의 「이니시어티브」는 우리側에 넘어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8·15宣言은 그 나름대로의 歷史的 使命을 遂行하였다고 할 것이다.

II. 「8.12」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의 背景과 立案過程

—〈目 次〉—

- | | |
|----------------------------|----|
| 1. 不安하게 느껴졌던 71年 봄의 安保環境…… | 25 |
| 2. 基礎研究 過程 …………… | 28 |
| 3. 「8.12提議」의 準備過程 …………… | 31 |
| 4. 死藏된 建議內容의 行方…………… | 33 |

1. 不安하게 느껴졌던 71年 봄의 安保環境

1971年 봄은 우리나라의 選舉季節이었다. 4月27日은 第7代 大統領選舉日이었고 5月25日은 第8代 國會議員 選舉日이었다. 그리고 3期제를 맞는 朴正熙大統領의 就任式이 7月1日에 舉行되었다.

第25周年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이 새로운 平和統一 構想을 밝힌 70年 8月부터 大統領 選舉日까지의 8個月間에는 우리 安保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몇 가지 主要한 事件이 있었다.

첫째로 美國이 71년에 들어와 第7師團을 中心으로 하는 駐韓美軍 2萬名을 撤收시키고 있었다. 70年 봄에 이 問題가 提起된 後 7月부터 兩國政府間의 긴 協議가 있었으나 美國側은 71年 2月6日 協議結果를 담은 共同聲明을 通해 國軍現代化를 위한 軍事援助를 提供한다는 約束과 韓國에 대한 軍事的 威脅의 性格을 評價하기 위한 兩國間의 安保協議會議을 年例적으로 開催한다는 約束을 남기고 一方的으로 決定한 減縮計劃을 끝내 實行에 옮긴 것이다. 韓國戰에 參加한 美軍이 6萬餘名만 殘留하고 1954年 8月까지 모두 돌아간 以來 처음있는 駐韓美地上軍의 減縮이며 北韓의 對南戰略에 아무런 變化의 조짐이 없고 國軍이 越南에 派兵되어있는 狀況속에서 斷行된 駐韓美軍의 撤軍이다. 68年の 靑瓦臺 奇襲事件이나 蔚珍·三陟 武裝共匪事件을 생생하게 記憶하고 있던 國民들은 國軍이 越南에 있는 동안은 駐韓美軍의 規模에 變動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던 때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事件은 소위 「핑퐁」外交였다. 조심스럽게 關係改善 信號를 交換해 오던 워싱턴과 北京은 71년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가까워졌다. 2월에 닉슨大統領이 「中華人民共和國」이란 正式號稱을 처음으로 使用하고 3월에 國務省이 中國大陸에 대한 美國人の 旅行制限을 全廢한데 이어 4월에는 日本 「나고야」의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參加했던 美國卓球「팀」이 함께 參加한

中國大陸選手團의 招請으로 北京을 訪問했다. 美國卓球「팀」이 北京에 滯留하고 있는 동안 周恩來首相은 4月14日 이들에게 리셉션을 베풀었고 닉슨大統領은 4月16日 記者會見에서 自身の 中國大陸 訪問 希望을 피력하여 그해 7月 世上을 놀라게 한 그의 北京訪問決定 發表의 序幕을 올렸다.

세번째로는 東西間의 緊張緩和趨勢가 歐洲에서 착실히 進展되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70年 4月 「빈」에서 開始된 美·蘇間 戰略武器制限協商(SALT)의 本會談이 11月初부터 12月中旬까지 헬싱키에서의 第2라운드를 거쳐 71年 3月에는 다시 「빈」에서 第3라운드에 들어감으로써 美·蘇 和解雰圍氣가 成熟되어 갔다. 이와함께 東·西獨間의 政治的 接觸이 활발히 展開되는 가운데 70年 8月과 11月에 武力不行使와 歐洲의 現狀承認을 內容으로 하는 西獨·蘇聯條約과 西獨·폴란드條約이 차례로 締結되었다.

네번째로는 70年 11月20日 第25次 UN總會에서의 中國代表權 問題에 關한 表決에서 北京政府의 招請과 台灣政府의 追放을 內容으로 하는 「알바니아 決議案」이 63년부터 每年 同 決議案이 提出된 後 처음으로 多數 支持를 獲得했다는 事實이다. 勿論 그 直前に 美國의 主導下에 中國代表權 變更問題의 主要事項 指定 決議가 採擇되었고 「알바니아 案」에 대한 表決結果가 贊成 51, 反對 49로 主要事項 指定 決議가 要求하는 3分の 2 以上の 贊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北京政府의 UN加入이 實現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東西間의 緊張緩和 趨勢와 北京政府에 대한 承認國 增大 趨勢속에서 「알바니아 案」이 일단 多數支持를 獲得한 以上, 中國代表權의 變更을 71年 가을의 第26次 UN總會에서도 封鎖하기란 不可能하게 보였으며 이러한 展望은 그 후 美·中間의 「핑퐁」外交로 더욱 確實視 되었다.

끝으로 들 수 있는 것은 駐越美軍의 大幅的인 撤收였다. 54萬餘名에 達하던 駐越美軍은 69年 6月 段階的인 減縮計劃이 着手된 以來 71年 4月까지에는 4次에 걸쳐 26萬名이 撤收하고 28萬 程度가 남았다. 그리고 4月7日 닉슨大統領은 그 해 5월부터 12月初까지 10萬名을 追加로 撤收한다는 第5次 撤軍計劃

을 發表했다. 그때까지 파리평화회담은 백여차례 開催되었으나 合意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越南 政府軍의 戰力增強 計劃도 뚜렷한 成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第5次 撤軍計劃을 發表한 것은 2月初旬부터 「胡志明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美軍의 空中支援下에 라오스南部에 進擊해 들어간 越南政府軍이 共產軍의 反擊에 敗走하여 撤收한 直後였다. 卽 共產軍의 能力에 비추어 越南政府軍의 戰力增強 態勢가 不充分하다는 것이 證明되었는데도 닉슨大統領은 美國內의 反戰輿論과 全面的 美軍撤收要求 示威에 밀려 一方的인 撤收計劃을 繼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情勢를 보는 우리 國民과 政府의 눈은 착잡했다. 美 第7師團의 撤收나 駐越美軍의 一方的인 減縮持續 그리고 닉슨大統領의 中國大陸接近努力은 美國의 安保公約에 대한 懷疑를 불러일으켰다. 美·蘇間의 和解나 美·中 關係改善은 앞으로 韓半島 問題를 大國間 흥정의 對象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不安을 惹起시켰다. 또 緊張緩和趨勢나 中國代表權 問題에서 表出된 UN의 霧圍氣 變化는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再檢討를 強要하는 要因으로 비쳤다. 第7代 大統領選舉때 安保問題가 與野間의 뜨거운 爭点으로 登場한 것은 바로 이러한 不安과 憂慮를 背景으로 하고 있었다.

같은 背景下에서 朴大統領은 이 무렵 보통 1週日에 한번 程度로 安保關係長官會議를 열고 있었다. 여기에는 關係長官을 비롯하여 中央情報部長, 大統領特別補佐官 등이 參席했는데 이 當時 特別補佐官은 外交, 國防, 政治, 經濟, 文化·教育, 社會의 各 分野別로 여러 명 있었다. 그리고 會議 始作前에 中央情報部の 局長이나 課長이 北韓動向과 國際情勢中 特定問題를 골라 이들에게 브리핑하는 境遇가 종종 있었다.

大統領選舉가 끝나고서 얼마 안된 5月初旬의 어느날 靑瓦臺에서 安保關係長官會議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이날의 브리핑 차례에는 國際情報局의 金達述 亞洲分析課長이 印支事態를 說明했다. 그리고 本會議에서는 周邊情勢의 變化動向과 그것이 우리 安保에 미칠 影響에 關한 檢討가 있었다. 朴大統領의 質

問과 參席者의 意見開陳으로 會議는 長時間 持續되었으나 結論이 導出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李厚洛 情報部長이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하기 위해 우리의 安保·外交政策은 全面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그러나 당장은 總選을 目前에 두고 있는 만큼 安保·外交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룰 適切한 時期가 아니라고 말했다. 總選때까지는 이를 無事히 치르는데 全力을 傾注해야 하고 總選이 끝나면 곧 우리의 安保·外交政策을 再定立해야 한다는 뜻이다. 李部長의 發言이 있던 다음 會議는 끝났다.

브리핑後 곧 本會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會議場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뒷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金課長은 事務室에 돌아와 李部長의 發言內容을 李哲熙 國際情報局長에게 傳했다. 局長은 卽席에서 이에 關한 部長의 指示가 있을지 모르니 作業班을 編成하여 研究를 하라고 指示했다.

2. 基礎研究 過程

局長의 指示에 따라 北韓, 中國, 印支, 國際機構를 各各 擔當하는 4名の 分析官으로 作業班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固有業務가 많았으므로 日常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淸涼里驛前의 富林호텔에 들어가 共同作業을 했다. 그러나 作業方向에 關한 指針이라고는 總選以前까지 報告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었다. 部長으로부터 指示가 있을 것으로 豫想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없었다. 그래서 作業班은 고민 끝에 70年 8月 朴大統領의 光復節 慶祝辭 內容을 國際情勢의 變化趨勢에 맞추어 發展시키기로 했다.

約 10日間の 作業끝에 完成된 研究結果는 個條式으로 「브리핑 차트」에 바로 옮겨졌다. 時間에 쫓기어 完全한 形態의 書類는 만들지 못했다. 題目은 「70年代 韓國의 새로운 戰略」이었고 內容은 安保情勢評價, 우리의 對應戰略, 建議의

問과 參席者의 意見開陳으로 會議는 長時間 持續되었으나 結論이 導出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李厚洛 情報部長이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하기 위해 우리의 安保·外交政策은 全面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그러나 당장은 總選을 目前에 두고 있는 만큼 安保·外交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룰 適切한 時期가 아니라고 말했다. 總選때까지는 이를 無事히 치르는데 全力을 傾注해야 하고 總選이 끝나면 곧 우리의 安保·外交政策을 再定立해야 한다는 뜻이다. 李部長의 發言이 있던 다음 會議는 끝났다.

브리핑後 곧 本會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會議場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뒷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金課長은 事務室에 돌아와 李部長의 發言內容을 李哲熙 國際情報局長에게 傳했다. 局長은 卽席에서 이에 關한 部長의 指示가 있을지 모르니 作業班을 編成하여 研究를 하라고 指示했다.

2. 基礎研究 過程

局長의 指示에 따라 北韓, 中國, 印支, 國際機構를 各各 擔當하는 4名の 分析官으로 作業班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固有業務가 많았으므로 日常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淸涼里驛前의 富林호텔에 들어가 共同作業을 했다. 그러나 作業方向에 關한 指針이라고는 總選以前까지 報告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었다. 部長으로부터 指示가 있을 것으로 豫想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없었다. 그래서 作業班은 고민 끝에 70年 8月 朴大統領의 光復節 慶祝辭 內容을 國際情勢의 變化趨勢에 맞추어 發展시키기로 했다.

約 10日間の 作業끝에 完成된 研究結果는 個條式으로 「브리핑 차트」에 바로 옮겨졌다. 時間에 쫓기어 完全한 形態의 書類는 만들지 못했다. 題目은 「70年代 韓國의 새로운 戰略」이었고 內容은 安保情勢評價, 우리의 對應戰略, 建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용의 第1部는 向後 數年間の 國際情勢와 北韓動向을 展望하고 이것이 우리 安保에 미칠 影響을 分析한 것이었다.

第2部의 對應戰略에는 戰略觀點, 對北韓·對共產圈·對友邦國 戰略 등이 記述되었는데 核心은 對北韓 戰略에 있었다. 우선 「戰略觀點」에는 美國의 安保公約에 대한 信賴가 重要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自主國防 努力을 強化하는 한편 韓半島의 緊張緩和措置도 積極적으로 取해야 한다는 點, 強大國들이 우리의 意思에 反하는 韓半島問題 處理를 恊정할 可能性에 對應하기 위해서 南北韓間的 直接 接觸이 必要하다는 點, UN會員國의 態度變化에 비추어 北韓의 國際社會 進出을 長期間 封鎖하기는 어렵다는 點 등이 指摘되었다.

다음으로 「對北韓 戰略」에는 南北韓間的 緊張을 緩和할 수 있다고 判斷된 여러가지 內容이 包含되었지만 큰 줄거리는 세가지였다.

첫째는 南北間的 接觸과 交流를 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學術·스포츠·文化分野의 交流부터 시작하여 成果가 있으면 어느 段階에 가서는 偶發的인 事故를 防止하기 위한 兩國間的 直通電話를 設置한다는 것이다. 報告書에서 南北間的 接觸과 交流를 提起한 것은 70年 光復節 慶祝辭에 들어있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적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도 보다 現實的인 方案』의 內容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東·西獨間的 交流 現況이나 美·中間의 「핑퐁」外交, 美·蘇間的 「핫트 라인」도 參考했다.

둘째는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는 措置를 取하자는 것이었다. 板門店에 南北韓 代表가 參加하는 人權裁判所를 만들어 이를 통해 離散家族間的 面會, 消息傳達, 郵便物 交換 등을 實現한다는 것이다. 報告書에 離散家族問題가 들어간 것은 두가지 理由에서였다. 하나는 위에 引用한 70年 光復節 慶祝辭 가운데 「人道的 見地」란 말이 들어있어 이 問題가 報告書에 包含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71年 2月 日本의 「삿포르」 冬季「프레올림픽」에 參加한

北韓의 스케이트選手 韓弼花와 韓國에 있는 그녀의 오빠가 國際通話까지 했으나 周旋되고 있던 面會는 마지막 순간에 霧散되어 버린 일이 있어 離散家族問題에 대한 國民의 關心이 이때 특히 높았기 때문이다.

세제는 北韓이 UN總會나 專門機構의 活動에 參加하는 것을 許容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U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愧가 參席하는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70年 光復節 慶祝辭 內容을 擴大한 것인데 이렇게 擴大한 것은 北韓의 進出 封鎖가 事實上 어려워졌다는 判斷을 基礎로 하고 있었다.

第2部の 마지막部分에 包含된 「對共產圈 戰略」과 「對友邦國 戰略」은 簡略하게 取扱되어 있었다. 前者는 共產諸國과의 非政治的 交流부터 시작하여 國際的 緊張緩和趨勢에 適應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韓半島 平和定着努力을 披瀝하여 中·蘇가 北韓에 대해 軍事援助를 削減하고 南北接觸에 나오도록 壓力을 加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骨子였다. 또 後者는 美·日과의 協議를 緊密히 하여 우리의 對北韓 接觸努力이나 對共產圈 關係改善 努力을 이들의 對北韓 交流口實로 利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美國이 對韓 安保公約을 遵守토록 하기 위해서는 韓·美間의 經濟的 紐帶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 등이 要点이었다.

第3部の 「建議」에는 크게 보아 두가지가 提議되었다. 하나는 第2部に 나와 있는 戰略을 보다 具體적으로 補完하여 朴大統領의 第3期 任期中에 施行할 安保·外交의 基本政策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둘은 7月1日의 大統領 就任式이나 8月15日의 第26周年 光復節 記念式 때에 大統領이 南北韓의 接觸·交流와 離散家族問題에 관한 措置를 提案하고 UN總會와 專門機關에 대한 北韓의 參加를 反對하지 않을 用意의 中·蘇를 包含한 共產國家와의 關係改善 希望을 밝히도록 建議한 것이었다.

以上이 主要內容의 全部다. 作業班에서는 좀 더 다듬고 싶었으나 作業途中에 靑瓦臺 報告日字가 이미 定해져 있었다. 그 報告 날짜가 5月18日 쯤이었다. 靑瓦臺에 가기 하루 전날 「브리핑차트」는 局長에게 提示되었다. 作業班의 時

間事情으로 中間報告를 받지 못했던 局長은 처음으로 說明을 듣고 몹시 놀란 表情을 지으면서 大統領에게는 情勢評價 部分만 報告하고 對應戰略 部分은 指針을 받아 그후 다시 作成하라고 提示했다. 그는 對應戰略 部分이 너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情勢評價 部分을 急히 補完하여 그 部分만 豫定된 時間에 大統領에게 報告했다. 그러나 大統領의 새로운 作業指示나 指針은 없었다. 結局 富林호텔에서 만든 報告書의 알맹이는 死藏되고 作業班은 그 날로 解體되었다.

3. 「8.12提議」의 準備過程

71年 7月1日 中央情報部の 改編으로 國際情報局에서 國際情報分析局이 떨어져 나옴과 康仁德 國際情報局 副局長이 分析局의 局長이 되었다. 康局長은 富林호텔에서 作成된 報告書의 內容이 合理的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作業 때 自身이 諮問한 바도 있었으므로 就任直後 問題의 「차트」를 40餘日만에 다시 꼬집어내어 李厚洛部長에게 說明했다. 李部長은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施行에 옮길 수 있도록 準備하라고 指示했다.

곧 作業이 개시되었다. 여기에는 康局長의 指揮下에 金泰瑞 北韓課長과 極少數의 北韓擔當 分析官이 參加했다. 앞으로 南北韓의 接觸·交流와 關聯한 業務가 폭주할 可能性에 對備하여 7月 12日頃 北韓課를 北韓處로 擴大함에 따라 새로이 任命된 金達述 北韓處長 등이 追加로 加擔했으나 保安問題 때문에 實務作業에 參加한 人員은 5~6名을 넘지 않았다.

草案作成, 報告, 再指示, 修正過程을 되풀이하면서 7月 20日頃의 時點에서는 計劃의 윤곽이 成案되고 大統領의 裁可도 끝났다. 이 때의 計劃에 따르면 먼저 朴大統領이 71年 8月 15日 光復節 第26周年 慶祝辭에서 南北韓 交流와

間事情으로 中間報告를 받지 못했던 局長은 처음으로 說明을 듣고 몹시 놀란 表情을 지으면서 大統領에게는 情勢評價 部分만 報告하고 對應戰略 部分은 指針을 받아 그후 다시 作成하라고 提示했다. 그는 對應戰略 部分이 너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情勢評價 部分을 急히 補完하여 그 部分만 豫定된 時間에 大統領에게 報告했다. 그러나 大統領의 새로운 作業指示나 指針은 없었다. 結局 富林호텔에서 만든 報告書의 알맹이는 死藏되고 作業班은 그 날로 解體되었다.

3. 「8.12提議」의 準備過程

71年 7月1日 中央情報部の 改編으로 國際情報局에서 國際情報分析局이 떨어져 나옴과 康仁德 國際情報局 副局長이 分析局의 局長이 되었다. 康局長은 富林호텔에서 作成된 報告書의 內容이 合理的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作業 때 自身이 諮問한 바도 있었으므로 就任直後 問題의 「차트」를 40餘日만에 다시 叩집어내어 李厚洛部長에게 說明했다. 李部長은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施行에 옮길 수 있도록 準備하라고 指示했다.

곧 作業이 개시되었다. 여기에는 康局長의 指揮下에 金泰瑞 北韓課長과 極少數의 北韓擔當 分析官이 參加했다. 앞으로 南北韓의 接觸·交流와 關聯한 業務가 폭주할 可能性에 對備하여 7月 12日頃 北韓課를 北韓處로 擴大함에 따라 새로이 任命된 金達述 北韓處長 등이 追加로 加擔했으나 保安問題 때문에 實務作業에 參加한 人員은 5~6名을 넘지 않았다.

草案作成, 報告, 再指示, 修正過程을 되풀이하면서 7月 20日頃의 時點에서는 計劃의 윤곽이 成案되고 大統領의 裁可도 끝났다. 이 때의 計劃에 따르면 먼저 朴大統領이 71年 8月 15日 光復節 第26周年 慶祝辭에서 南北韓 交流와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을 위해 北韓側과 對話를 시작할 用意가 있다는 提議를 包含하여 앞으로의 對北·對外政策 方向을 概略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으로 慶祝辭 內容가운데서 離散家族問題의 部分만을 別途로 떼어내어 이를 具體化하는 形式으로 8月 17日 大韓赤十字社 總裁가 이 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會談을 北韓赤十字會에 提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豫想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뒤에 일어났다. 우리의 計劃이 7月 26日 日本의 讀賣新聞에 『8月 15日의 光復節에 朴大統領이 北韓에 대하여 南北間의 一部交流를 提案할 計劃이라고 消息通은 말하고 있다』든가 『同 消息通에 의하면, 同時に 大韓赤十字社가 北韓赤十字會에 대하여 南北間의 郵便交換 實現을 別途로 提案할 計劃이다』는 등으로 報道되었다. 어떤 情위로 計劃이 漏泄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實務作業陣에서 漏泄하지 않은 것만은 確實하다. 이는 實務陣에 대한 問責이 없었다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어서 8月 6日에는 金日成이 「시아누크」 歡迎 平壤市群衆大會에서 그들의 「8個項 提案」을 再確認하고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發表했다. 우리側에서는 이것을 讀賣新聞 報道를 통해 우리 計劃을 알아차린 北韓이 南北韓 接觸·交流 提案을 그들이 먼저 했다는 記錄을 남기려는 策略으로 받아들이고 金日成의 여사한 演說直後에 朴大統領이 南北韓間의 接觸·交流 提議를 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고 判斷했다. 더우기 北韓의 8個項 提案에도 『南北間의 通商과 經濟的 協調, 科學, 文化, 體育 등 여러 分野에 걸친 相互交流와 協調實現, 南北間의 便紙去來와 人士來往 實現』이 包含되어 있고 許鎔이 그해 4月12日 最高會議 報告를 통해 同 提案을 發表했을 때 우리側은 4月14日 崔圭夏 外務部長官의 聲明으로 이미 反對한 바 있었다.

結局 計劃을 바꾸어 當初 朴大統領이 밝히려던 內容을 光復節 慶祝辭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8月17日로 잡았던 赤十字總裁의 提案을 8月12日로 앞당기기로 했다. 可及의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들은 했으나 準備時

間上 그 以前에 하는 것은 無理였다.

計劃이 바뀌자 赤十字會談提議 準備가 더욱 急해졌다. 印刷가 完了된 것은 8月11日 午前이었다. 即時 實務陣에서 資料를 갖고 수유리方面에 있는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宅으로 달려갔다. 갖고 간 것은 國文發表文 200部정도, 外國記者에게 配布할 英譯 및 日譯 發表文 각 100部內外, 그리고 質疑應答 資料였다.

崔總裁는 이러한 歷史的인 일을 自身이 하게 되었다고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發表文이나 質疑應答 資料의 文案作成過程에서 自己와 相議하지 않은 點에 대해서는 서운해 하는 表情이었다. 崔總裁는 自己가 8月12日 午前 10시에 發表한다는 것은 事前에 連絡을 받아 알고 있었으나 막상 發表文에 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準備時間이 5日間이나 短縮되어 實務陣에서 文案을 檢討받을 餘裕가 없었던 것이다.

4. 死藏된 建議內容의 行方

71年 8月の 慶祝辭 內容이 當初 計劃과 달라짐으로써 「70年代 韓國의 새로운 戰略」에 提示된 建議들은 離散家族問題를 除外하고서는 모두 死藏되고 말았으나 이들 건의 가운데 相當部分은 그로부터 2년이 채 못되어 다시 살아났다. 73年 5月 19일에 있는 北韓의 WHO(世界保健機構) 加入問題에 대한 表決이 그 契機였다.

北韓이 WHO 會員資格을 얻게 되면 이는 最初의 UN專門機構 加入일 뿐만 아니라 뉴욕에 北韓의 代表設置가 許容되기 때문에 權寧百 局長(82年 死亡)의 指揮아래 鄭載烈(83年 死亡), 權炳澤, 池珠善 등 3名の 課長이 이 問題에 대한 對應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作業을 했다. 71年 7月 改編으로 獨立된 國際情報分析局은 그 후 北韓局(當時局長: 康仁德)과 國際局으로 다시 分離

間上 그 以前에 하는 것은 無理였다.

計劃이 바뀌자 赤十字會談提議 準備가 더욱 急해졌다. 印刷가 完了된 것은 8月11日 午前이었다. 即時 實務陣에서 資料를 갖고 수유리方面에 있는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宅으로 달려갔다. 갖고 간 것은 國文發表文 200部정도, 外國記者에게 配布할 英譯 및 日譯 發表文 각 100部內外, 그리고 質疑應答 資料였다.

崔總裁는 이러한 歷史的인 일을 自身이 하게 되었다고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發表文이나 質疑應答 資料의 文案作成過程에서 自己와 相議하지 않은 點에 대해서는 서운해 하는 表情이었다. 崔總裁는 自己가 8月12日 午前 10시에 發表한다는 것은 事前에 連絡을 받아 알고 있었으나 막상 發表文에 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準備時間이 5日間이나 短縮되어 實務陣에서 文案을 檢討받을 餘裕가 없었던 것이다.

4. 死藏된 建議內容의 行方

71年 8月の 慶祝辭 內容이 當初 計劃과 달라짐으로써 「70年代 韓國의 새로운 戰略」에 提示된 建議들은 離散家族問題를 除外하고서는 모두 死藏되고 말았으나 이들 건의 가운데 相當部分은 그로부터 2년이 채 못되어 다시 살아났다. 73年 5月 19일에 있는 北韓의 WHO(世界保健機構) 加入問題에 대한 表決이 그 契機였다.

北韓이 WHO 會員資格을 얻게 되면 이는 最初의 UN專門機構 加入일 뿐만 아니라 뉴욕에 北韓의 代表設置가 許容되기 때문에 權寧百 局長(82年 死亡)의 指揮아래 鄭載烈(83年 死亡), 權炳澤, 池珠善 등 3名の 課長이 이 問題에 대한 對應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作業을 했다. 71年 7月 改編으로 獨立된 國際情報分析局은 그 후 北韓局(當時局長: 康仁德)과 國際局으로 다시 分離

되었는데 이들은 國際局에 所屬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作業場所는 淸涼里驛앞에 「브라운호텔」(現在の 「맘모스」百貨店 자리)이었고 作業期間은 4月 下旬부터 5月初에 걸친 約 1週日이었다.

報告書는 「WHO對策」이란 題目下에 2個章으로 만들어졌다. 第1章에서는 國際潮流의 大勢를 볼 때 北韓의 國際機構 加入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므로 事前에 우리가 스스로 北韓의 國際機構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發表하는 것이 좋고, 이 發表는 大統領의 談話を 통해서 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建議했다.

第2章은 大統領 談話文의 草稿였다. 草稿의 앞 部分에서는 談話を 發表하게 된 動機와 背景을 說明하고 뒷 部分에는 具體적인 政策方向을 몇가지로 나누어 羅列하였다. 羅列된 政策方向의 核心은 물론 『國際機構에 北韓이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句節이었지만 그 밖에도 「70年代 韓國의 새로운 戰略」에 들어있던 몇가지 內容을 그대로 옮기거나 表現을 바꾸어 包含시켰다. UN 同時加入, 共產圈國家와의 交流, 友邦國과의 紐帶強化 등이 그것이다. 鄭載烈 課長과 池珠善 課長은 71年 봄 係長으로 있을 때 富林「호텔」에서의 作業에 參加했기 때문에 이러한 轉載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또 平和的 統一과 南北對話를 위한 努力을 繼續한다는 것도 插入시켰는데 이것은 UN 同時加入이 包含된 大統領 談話가 發表되면 北韓側에서 「分斷 固定化 策動」이라고 非難할 것이 豫想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國內의 法的 側面이나 國民思想에 미칠 影響 등을 考慮하여 同 談話의 內容이 우리의 北韓承認을 意味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作業過程에서 가장 陣痛을 겪은 것은 大統領의 談話文을 언제 發表할 것인가 하는 時期選定 問題였다. 5月19日의 表決結果에 대한 作業班의 判斷이 確固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作業初에는 5月19日 北韓의 WHO加入이 確實하다고 믿었다. 作業에 着手한 理由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作業 進行中에 들어온 在外公館 報告를 보니 北韓의 加入封鎖가 可能하다는 쪽이 優勢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作業班의 判斷도 바뀌어 作業의 마무리段階에 가서는 74年度에는 어렵지마는 73年度에는 막을 수 있다고 斷定하게 되었다. 그래서 初盤에는 談話 發表日字를 「73年 5月19日 以前의 可及的 빠른 時期」로 하였다가 끝에 가서는 「73年 5月 19日 直後」로 고쳤다. 北韓의 加入을 挫折시킨 直後の 勝者 立場에서 北韓에게 雅量을 베푸는 式으로 發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報告書는 5月初 李厚洛部長의 檢討를 받았다. 李部長은 『이 사람들 演說文을 써보지 않았구만』하면서 文章을 세시간 동안이나 다듬었다. 題目은 「WHO 對策」에서 「國際情勢가 緊張緩和 趨勢로 변모하고 있는 때에 즈음한 大統領 特別談話」라고 하는 긴 것으로 바뀌었다. 發表時期도 「73年 5月 19日 直後」에서 「WHO勝利 直後」로 다른 表現을 使用했다. 李部長도 北韓의 WHO 加入을 73年度에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 것 같았다.

그 후 2~3日 지나 報告書는 大統領에게 올라갔으며 朴大統領은 이를 大統領 特別補佐官室을 비롯한 關係部處에서 檢討케 했다. 이 過程에서 一部가 削除되거나 補完되었다. 「共產圈 國家와의 交流」가 「모든 國家와의 門戶開放」으로 代置되는 등의 表現變更도 있었다.

5月 19日이 되자 WHO 表決結果는 北韓加入으로 낙착되었다. 實務陣의 完全한 誤判이었다. 結局 大統領의 談話는 5月19日 直後に 나올 수 없게 되고 그 해 6月23日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이라는 이름으로 發表되었다.

1. 「8.15」 平和統一構想 宣言 關聯資料

가. 「8.15」 平和統一構想 宣言

(1970. 8. 15 光復節 25周年 大統領 慶祝辭)

親愛하는 國內外 5千萬 同胞 여러분!

오늘은 우리 民族이 비할데 없는 感激과 歡喜속에 맞이했던 祖國光復, 그 날로부터 꼭 4半世紀가 되는 날입니다.

25年前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 거리에서 太極旗의 물결을 수놓으며 自由解放 萬歲의 歡呼聲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날, 우리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私心도 打算도 없는 純粹한 愛國愛族의 마음으로 다함께 우리 民族再起의 出發을 기뻐하였고 우리 歷史의 새로운 光榮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抑壓과 隸屬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祖國을 되찾아 다시는 祖上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새로운 繁榮의 民族國家를 建設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벽찬 感激과 불타오르던 情熱은 永遠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될 不滅의 烽火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人間의 幼兒期로부터 少年期와 青年期를 넘어서 이제 그 完熟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世代에 해당하는 時間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民族, 한 國家에 있어서도 그간의 成長度를 嚴肅히 評價해 보아야 할 歷史上的 里程標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成年 韓國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內外에 크게 誇示하고 있는 이 時點에서 다시 한번 光復節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感懷는 자못 무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의 光復 韓國史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激動의 時期였고, 苦難과 試鍊의 連續이었습니다.

光復의 感激과 歡喜가 國土分斷의 衝擊과 不幸속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繁榮의 希望과 期待는 北韓 共產集團이 挑發한 慘酷한 戰亂속에 한 조각 虛空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나아가서 政府樹立 以後의 混沌과 停滯는 급기야 두차례의 政治的 激動의 소용돌이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라, 他方에 의하여 주어진 光復을 분간 消化할만한 主體的 力量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試鍊과 陣痛은 피할 수 없었던 必然의 結果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苦難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悲劇을 당하여 결코 挫折하지 않았으며 逆境앞에 끝내 屈하지 않았습니다.

長久한 民族史를 통하여 수없이 많았던 内外의 憂患을 強靱한 意志와 擧族的인 抗爭으로 이겨내고 祖國의 獨立을 保全하여 왔던 굳세고도 억센 우리 民族 本然의 潛在的 力量이 試鍊克服의 途程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오른 民族的 自覺이 凝結하여 잠자고 있던 生命力과 創造力에 點火되어 民族中興의 前進隊列을 整備한 歷史的 轉換點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1960年代였습니다.

그로부터 8~9年, 우리들은 祖國近代化課業을 위하여 온갖 努力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세계는 50年代의 動亂 韓國이 이제 新生國 發展의 模範國家로 登場했다는 새로운 認識을 가지고 우리 民族에 대해서 羨望과 敬畏의 눈으로 쳐다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外形的 成果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우리 民族의 無限한 底力을 再發見하고 우리의 意志와 우리의 努力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自信과 矜持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着手한 中興課業을 기필코 完遂해야 할 使命의 70年代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4半世紀의 歷史의 章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날날의 歷史的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決意와 우리 後孫들에게는 보람찬 遺産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使命感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오늘 光復 第25周年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國土分斷의 悲劇입니다.

統一을 向한 民族的 悲願은 지난 4半世紀 동안 하루도 우리의 腦裡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統一의 展望은 수많은 難關과 隘路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現實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原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民族反逆集團이 北韓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狂信的이며 好戰的인 共產集團은 祖國光復의 첫날부터 全 韓半島를 暴力으로 赤化하기 위해서 始終一貫 狂奔해 왔습니다.

6·25南侵의 慘酷한 同族相殘에 이어서 休戰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800餘件이 넘는 武力挑發을 恣行해 왔고 最近에는 무수한 武裝共匪를 南派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實證입니다.

정녕, 金日成과 그 徒黨은 마땅히 歷史와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아야 할 戰犯者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徒黨은 言必稱, 平和統一이니, 南北協商이니, 聯邦制니 南北交流니 하는 등 파렴치한 常套의 宣傳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青天白日下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戰犯行爲와 緊張造成의 責任을 轉嫁해 보려는 賊反荷杖의 凶計인 것이며 武裝共匪 南派를 僞裝, 隱蔽하고 素朴한 一部 사람들을 眩惑케 함으로써 感傷的 統一論을 誘發해 보려는 간사한 術策인 것이며 國際輿論의 誤導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虛僞와 欺瞞에 가득찬 北韓共產集團의 作態를 믿는 사람은 地球上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斷言합니다.

무릇, 共產主義의 政治體制는 基本人權의 蹂躪과 鐵의 紀律에 의한 全體主義的 一黨獨裁입니다.

그중에서도 金日成 體制는 같은 共產圈內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極左 冒險主義와 歷史僞造를 일삼는 個人 神格化가 판을 치는 閉鎖社會입니다.

오늘의 북녘땅은 그러한 專橫과 恐怖가 휩쓰는 가운데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하나의 兵營으로 化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歷史와 民族과 天倫과 良心을 외면한 凶惡한 武力挑發集團과 對峙하여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民族의 悲願인 祖國統一의 難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土統一이 아무리 절실한 民族의 地上命숨이라 하더라도 同族의 流血을 強要하는 戰爭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險難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忍耐와 最大限의 良識을 發揮하여 平和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金日成 一派의 戰犯集團이 끝내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暴力的인 侵略을 敢行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擊退할 수

있는 힘의 培養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統一努力의 本格化는 70年代 後半期에나 可能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時期에 이르면 우리의 主體力量의 充實과 國際的 與件의 성숙으로 統一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北韓의 閉鎖的인 社會體제도 時代의 進運인 자유화물결에 의해 스스로 變質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흐를 것을 確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時期를 展望하면서 나는 光復 4半世紀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方法에 관하여 나의 構想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先行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즉 北韓 共產集團이 지금과 같은 侵略的이며 挑戰的인 行爲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假面이요, 僞裝이요, 欺瞞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緊張狀態의 緩和없이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의 接近은 不可能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保障하는 北韓 共產集團의 明確한 態度表示와 그 實踐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武裝共匪 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企圖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것을 明白하게 內外에 宣言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實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北韓 共產集團이 受諾·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 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爲的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유엔」의 努力을 認定하고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北韓 共產集團에 대하여 『더이상 무고한 北韓同胞들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즉, 다시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內外 同胞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世界에 門戶를 開放한 19세기 후반의 開化期로부터 近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世紀, 우리 民族은 落後와 隸屬과 戰亂과 混沌이 겹친 受難을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中興의 黎明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中興의 機會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記憶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半世紀를 넘기면 今世紀의 末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世界와 그 속에서 우리 大韓民國이 서 있을 座標가 어디겠는가 하는 것을 精確하게 豫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祖國은 國土統一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래된 強力한 民族國家로서 온 국민이 다함께 繁榮을 謳歌할 수 있는 豊饒한 先進 福祉國家로서 世界史의 主流에 堂堂히 參與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

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着實한 그 준비기간인 것입니다.

1970年代는 이렇듯 過去와 未來를 연결하는 우리의 近代 民族史의 途程에서 民族中興의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한 價値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年代의 中興課業을 成就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만큼 生産的인 目標에 集結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民族의 團結, 힘의 集中, 그것은 정녕 民族中興의 成敗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當面 課題인 自立經濟와 自主國防을 이룩하는 것도 民族의 團結이며 民族의 念願인 國土統一을 成就하는 것도 우리의 團結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年前 8·15에 謳歌했던 그 感激과 歡喜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祖國統一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團結하여 前進합시다.

나. 國內反應

○朴大統領의 平和統一方案

(1970. 8. 15 東亞日報 社說)

朴大統領은 光復二十五周年 紀念辭를 通하여 統一方案을 제시했거니와 이는 앞으로 韓半島에 일어날 事態에 있어서 一大轉機를 布石했다고 할 수 있는 획기적 發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北傀는 武裝共匪南派등의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포기하겠다』는 점을 明白하게 內外에 直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證」한다면 『나는 人道的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爲的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方案을 提示, 施行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北傀가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傀가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도 아울러서 明白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李承晩大統領의 北進統一論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까지 北傀와 한자리에 앉아서 統一을 이야기하는 것을 忌避해온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朴大統領의 그 發言은 획기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朴大統領의 統一方案이 北進統一論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은 그가 『統一論議는 七〇年代 後半에 가서 우리가 經濟的 優位에 서게된 다음에 하자』고 거듭 말해온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平和統一方案을 이처럼 具體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朴大統領의 이러한 統一方案은 물론 어제 오늘에 成案된 것은 아닐 것이며 이 時點을 택해서 이를 公表한데는 그나름의 理由가 있을 줄 알거니와 北傀가 好戰的인 中共과 갑자기 密着을 強化하면서 길으로는 平和攻勢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 一擊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 여지는 없을 것이다. 특히 蘇聯의 「유엔」大使 「야콥 말리크」가 방금 平壤에 와서 北傀의 「유엔」作戰을 짜고 있는 때를 선택한 것은 인상적이다.

朴大統領이 『보다 善意의 競爭,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輿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경쟁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고 말한 것은 金日成의 가장 아픈데를 찔렀다고 하겠다. 金日成이가 지금까지 길으로만 平和統一을 떠들면서도 실인즉 善意의 경쟁을 거부하고 戰爭準備에만 광분하고 있는 것은 善意의 경쟁에서의 勝算이 없기 때문일 것이니 말이다.

물론 朴大統領의 이 提案은 善意의 경쟁에서의 勝算을 確信하고있는 所致려

니와 그러나 北傀가 앞으로도 계속 善意의 경쟁을 거부하고 武力南侵을 드발해 올 것은 뻔히 쳐다보이니 朴大統領의 그 제안은 北傀의 平和攻勢에 대해 이제까지는 守勢에만 몰려있던 戰線을 攻勢로 뒤집은 効果 以外の 効果란 없을 것 같다.

물론 朴大統領이 北傀에 관한 狀況判斷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적어도 北傀가 善意의 경쟁을 거부하고 武力統一을 企圖하는 것은 善意의 경쟁에서의 勝算을 發見 못했거나 金日成生前에 統一한다는 것에 대해 悲觀的 展望을 하고 있는 所致라고 판단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물론 朴大統領의 그 提案에 대하여 時機尙早라고하는 批判도 成立될 수 있겠으나 七〇年代 後半期에 접어들어서 경제가 더 번영되고 고용이 더 늘고 失業者가 없어지면 南派共匪가 발을 붙일데가 없을 것을 내다보지 못할 金日成이도 아니니 平和統一이나 武力統一이나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이때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에게 利로울 것이 없다고 判斷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善意의 경쟁에서 民主主義의 勝利를 戰取하자면 民主主義의 特性인 議會政治를 옹기 키워야 하는 동시에 自由企業制度를 옹기 보장해야만 할터인데 우리가 지금 議會民主主義發展을 위해서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自由企業制度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할 일을 다하고 있다 하겠는가? 이점 앞으로 특별한 反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善意의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武力對決을 하는데서나 빠뜨릴 수 없는 要件임을 다짐함과 함께 朴大統領의 平和統一方案에 대한 깊은 음미도 아울러 당부하고자 한다.

○ 統一을 向한 重大한 布石

— 朴大統領의 8·15慶祝辭를 評價한다 —

(1970. 8. 16 朝鮮日報 社說)

光復 25주년을 맞이하여 朴大統領은 그의 慶祝辭에서 民族統一의 基盤造成에

關한 政府의 構想을 발표했다. 이 發表는 지금 國內外的 非常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祖國이 南北으로 分斷되고 그 分斷이 半永久狀態로 凍結되어온지도 어인 25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激化되고있는 南北間의 軍事的 心理的 緊張狀態가 一觸即發의 危局을 빚어내고있는 現情勢下에서, 朴大統領의 이 重大한 發言은 平和統一을 摸索함에 있어서의 進一步한 案으로보고 우리는 그 意義을 높이 評價하고자 한다.

이제 朴大統領의 發言을 要約한다면 ①國土統一은 그것이 民族의 至上命令이라 하더라도 戰爭을 避하고 平和的으로 達成되어야 하며 ②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에는 반드시 緊張狀態의 緩和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前提위에서 ③北傀側이 戰爭挑發行爲와 暴力에 의한 大韓民國顛覆企圖를 포기한다면 南北間의 人爲的 障壁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現實的 方案을 제시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다 ④國際聯合의 權威權能을 北傀가 수락할 경우, 韓國問題討議에 北傀가 참석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을 것이요 ⑤끝으로 北傀가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일을 단념하고 南北間의 善意의 競爭에 나설 것을 促求하였다.

以上과 같은 統一基盤의 構想이 歷代政府가 國際聯合을 통하여 提示했던 統一案과 根本的으로 相馳한다든가, 劃期的인 轉換點을 마련한것은 아니지만, 國家元首이자 行政府의 首班이 직접 全國民 앞에 구체적으로 平和的 統一方法의 原則을 明示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리는 記憶한다. 위에 列舉한 原則들을 일일이 分析한다면 다시 數多한 부수적 問題들이 提起되겠으나 여기서 가장 重視할 것은 南北間에 緊張狀態의 緩和없이는 平和統一이 不可能함을 뚜렷이 強調한 點이다.

(그러나 前程 樂觀不許)

우리는 朴大統領의 이상과 같은 原則을 北傀側이 條件없이 성큼 수락할 것이라고는 결코 速斷하지 않는다. 6·25動亂以前의 南北協商論에서 4·19直後의 南北聯邦制統一案을 거쳐 主體路線宣布以後의 소위 「南朝鮮革命」을 통한 自主的

統一案을 提示해온 過程에서 北傀側은 그때마다 多様な 戰術的 提案으로 國際的 人氣獲得과 南韓의 民心攪亂을 試圖해 왔다. 現代共產主義의 重要な 특징은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 트로츠키의 「永續革命論」, 또는 毛澤東의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 등 名分에 부합되는 이데올로기上的 口號를 들고 黨內權力 鬭爭을 전개하면서 各自의 陣地를 구축하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金日成의 「祖國統一論」도 對內的으로는 누구도 反對할 수 없는 이 命題의 偉力을 빌어 一人獨裁—個人崇拜—全體主義體制를 強化해왔던 것이다. 1967年以後 全國의 要塞化—全人民의 武裝化—全軍의 幹部化政策을 통해 「革命基地」를 強化하고 「南朝鮮革命」—「南朝鮮解放」에 의한 統一達成을 획책하고 있는 金日成의 北韓이 南北間의 緊張解消를 바랄리 없다. 金日成이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國際的 緊張의 緩和가 韓半島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가하는 點이요, 그가 過去 25年 일관하여 추진해온 戰略은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의 關與로부터 分離시켜 大韓民國을 孤立시키는 한편, 美軍撤收로 南韓에다 軍事的 空白狀態를 造成하자는 것으로 集約된다. 그러나 그의 戰略과는 無關하게 적어도 美蘇間의 冷戰이 解消되는 징조를 보이고, 國際的 緊張이 部分的으로 緩和되는 것이 이 時代의 趨勢다. 케네디—호루시초프時代의 「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을 위시하여 최근의 西獨—蘇聯間의 不可侵條約, 中東의 休戰成立, 現在 「비엔나」에서 進行되고 있는 美蘇戰略武器制限會議 등 一連의 事件은 熱核武器의 발달로 國際的 紛爭을 平和的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限界狀況에 대한 솔직한 認識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北傀가 蘇聯 및 中共과 더불어 軍事條約을 체결했고, 大韓民國이 韓美防衛條約을 체결했다는 事態는 國際的 緊張狀態가 韓半島에 그대로 투영되었을 뿐아니라, 이 협소한 半島에서 東西陣營間의 軍事的 均衡이 이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北傀가 武力的 方法으로 南韓을 정복함으로써 統一을 試圖한다는 政策은 바로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軍事的 左翼冒險主義라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近者 駐韓美軍의 段階的 減縮의 論議에다 主觀的인 希望을 걸고 소위 「南朝鮮解放」을 추진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으로 南北韓의 힘의 均衡이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妄想이 아닐 수 없다.

(國際與件 成熟의 關鍵)

솔직히 말하여 韓國의 分裂은 源泉的으로는 韓國人 自身이 分열되었기 때문에 分裂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世界가 分裂되었기 때문에 韓國이 分裂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分裂 및 統一은 國際情勢와 밀접한 關係에 있고, 解放되었다는 韓半島를 分斷한 美蘇의 二大國은 이 나라를 統一시켜야 할 國際的 義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은 「朝鮮사람들의 內政問題」니, 外勢에 依存하여 統一을 달성하려는 것은 民族에 대한 「叛逆」이니 하는 類의 北傀側 論理는 平和統一을 포기하고 大國의 武力을 빌어 同族相殘의 兇殘한 內戰을 敢行하자는 直戰布告와 마찬가지로. 世界가 多元化해가고, 核武器의 發達이 人類의 生存을 위협하는 時代에 不幸하게도 東北亞細亞의 緊張의 焦點이 되어 버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戰鬥的인 共產主義者라해도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戰爭을 挑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國際情勢의 推移, 힘의 均衡, 戰爭의 破滅的 被害를 理性的으로 注視하고, 南北間의 緊張을 완화시키는 努力과 智慧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의 朴大統領의 發言을 우리는 重要的 것으로 理解한다. 이것만으로는 統一에 대한 具體案이 못된다고 하는 過小評價를 삼가야 하는 한편, 이것을 擴大解釋하여 이제는 일이 다되었다는 式의 興奮도 自制하지 않으면 안된다. 統一의 앞날에는 아직도 平坦치 않은 먼길의 가로놓여있다. 지금 必要로 하는 것은 激情, 흥분이 아니라 強靱한 意志, 투철한 理性, 現實에 대한 正確한 感覺이라고 우리는 確信한다.

○ 統一接近努力的 進展

— 朴大統領構想은 現實的 條件設定이다 —

(1970. 8. 16 한국일보 社說)

정부수립이후 國家元首로서는 처음보는 進取性 있고 획기적인 통일접근노력의 다짐이 표명되었다. 朴正熙大統領은 제25주년 光復節에 즈음한 慶祝辭를 통해 조건부, 단계적인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方法」구상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국민각계의 希願을 대변하며 국제여론의 추세를 감안한 착실한 一步前進이라고 평가된다.

朴大統領은 우선 民族의 悲願이며 國家目標인 조국의 南北統一이 아직껏 성취되지 못한 원인을 북한에 도사린 金日成 戰犯集團의 暴力赤化試圖로 단정했는데 이점은 歷史와 現實이 증명하는 바이다. 그렇더라도 통일을 위한 武力使用은 회피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의 「힘의 培養」은 오직 平和守護·侵略擊退에만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전국민이 동감할뿐더러 국제적으로 우리의 平和愛好 「이미지」定立을 위해 널리 알려야할 韓國의 基本立脚點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날을 회고할적에 한국의 그와같은 態度闡明이 뚜렷치 않았음을 奇貨로 北傀는 言行이 相反된 소위 「平和統一 攻勢」를 파렴치하게 전매특허마냥 일삼으려 했었다. 그러나 北傀 金日成體制의 極左冒險主義는 「共產圈內에서조차 빈축의 대상」으로된 형편이며, 個人神格화와 戰爭準備騷動 속의 北韓兵營化는 세상이 주지하는 바와 같다.

얼핏보아 北傀의 그러한 무리를 상대로 무슨 統一接近이 가능하겠는가하는 悲觀論도 제기될만했다. 나아가서 南北統一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리저리한 机上「方案」이상으로 현실적인 조건형성이 보다더 중요시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기에 朴大統領의 「70年代 後半期 統一努力 本格化」論은 우리의 「主體力량의 充實과 國際的 與件의 成熟」, 北韓의 폐쇄적인 사회체제의 變質必然性등 巨視的이고 착실한 統一條件形成을 내다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統一은 「民

族의 至上命令」이므로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부단한 접근과 연구까지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 마침내 이번에 적극적인 구상의 제시를 보게된 셈이다.

朴大統領은 北傀에 대해 두가지 조건 즉 ①武力使用 및 暴力革命論의 포기 에 관한 直言과 實證 ②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權威와 權能의 수락을 요구했다. 이 정당한 요구의 北傀에 의한 수락 실천이 우리와 「유엔」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 進取的인 相應措置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①「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기여할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단계적으로 除去」할 方案의 提示 用意 ②「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傀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에 관한 의사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서 高次元的인 平和的 競爭의 호소가 있으니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더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立證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的 競爭」에 나설 用意는 없는가고 北傀측에 물은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朴大統領의 이번 구상은 그동안의 民族中興 近代化作業의 추진에서 얻어진 自信과 矜持와 使命의 일깨움이 반영되어있다고 보게된다.

첫째 緊張緩和, 다음으로 단계적인 障壁除去, 끝으로 「유엔」감시하 南北總選을 염두에 둔 3段階 統一接近方法은 십분 정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때마침 今秋 「유엔」總會도 그 4半世紀를 기념하는 대행사를 예견케하거나와 國際平和愛好 輿論앞에서 우리 국민의 平和統一接近 志向을 公表하고 金日成集團의 偽裝된 「平和攻勢」의 馬脚을 드러내게하며 그무리와 구별되는 北韓 1천5백만 동포들의 良識에 호소한 의의가 크다. 韓國政府가 構想하는 進取的 措置에는 大前提가 있고 先行條件이 따라야 한다는 짐도 명백하다.

朴大統領의 統一接近 構想에 대한 國內反響은 政界의 輿·野와 學界·言論界를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原則的 歡迎」 一色인 것이 당연시 된다. 그러면서

도 일부에서는 간혹 더큰 前進을 아쉬워하는 未洽感과 한편 時機尙早를 말하는 慎重論도 있다고 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번 構想이 착실한 一步前進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게하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이 계제에 우리는 大前提와 條件을 망각한 무모한 내달리기라든지 이미 陳腐化한 感傷的 統一論등이 혹시 일부에 散見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民族의 悲願 成就에 아무런 도움도 안될 것임을 附言해두는 바이다. 다른한편 달팽이式 思考方式을 탈피 못하는 극소수의 영똥한 守旧派가 있다면 그들은 時代의 落伍者로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北傀의 반향으로 말하면 金日成戰犯集團이 이번에 제시된 條件을 受諾·實踐 하리라고는 선뜻 樂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北傀는 혹시 賊反荷杖의 逆攻勢를 시도하면서 「協商」등을 云謂할는지 모르지만 추호라도 민족적 양심이 남아 있을진대 국제여론과 全體人口의 대다수견해를 勸案하는데서 條件充足부터 先行시켜 마땅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平和的 方法을 통한 韓國의 民主統一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 接近努力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다. 부단한 統一條件 形成에의 착실하고 능동적인 참여는 當代의 모든 南北同胞들에게 주어진 기본사명이다.

解放 4半世紀에 우리가 國家的으로 겪은 온갖 苦楚와 激動 및 試鍊의 밑바닥에는 國土兩斷이라는 비통한 現實이 놓여있었다. 따라서 南北統一의 실현이라는 自律的인 제2의 8·15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보람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이 民族의 한결같은 悲願을 끝내 거역하지는 못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 朴大統領의 8·15 統一構想

(1970. 8. 17 中央日報 社說)

朴大統領은 8·15慶祝辭를 통해 北傀가 萬一 戰爭挑發行爲를 즉각 중지하겠

다고 宜言하고 그것을 行動으로 實證한다면 『南北韓에 가로놓았던 人爲的 障壁을 段階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도 보다 現實的인 방안을 제시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함으로써 國內外的 非常한 關心을 끌게 하였다. 스스로 「統一基盤造成을 위한 接近構想」이라고 설명한 그의 제안의 骨子は 北傀에 대하여 세가지 條件의 受諾과 그 성실한 實踐을 促求한 것으로서, 萬一 이러한 條件들이 完全히 充足된다면 지금까지 禁忌되었던 南北간의 交流나 接觸등도 「보다 現實的인 方案」의 하나로써 논의될 수 있음을 비침으로써 韓國國民에게는 오히려 충격적인 「뉴스」였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先行條件附 提案)

그가 제시한 세가지 條件은 ①北傀가 武裝共匪의 南派 등 一切의 戰爭挑發 行爲를 즉각 중지하고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의해 大韓民國의 진복을 기도해오던 종전태도를 完全포기할 것을 宜言하고, 이를 實踐에 옮길 것 ②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유엔」의 努力을 인정하고, 그 權威와 權能을 受諾할 것 ③무고한 北傀同胞의 民生을 희생으로 한 戰爭準備를 포기하고, 民主主義體制와의 善意的 競爭에 나설 것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先行條件의 성실한 履行이란 金日成徒黨들에게는 곧 자신들의 存立自體의 否認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北傀가 이를 받아들일 可能性은 거의 全無한 것이며, 그런 限에 있어 朴大統領의 構想이 國內적으로 우리의 反共態勢에 조금이라도 變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外交上の 「이니셔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大統領의 이와같은 발언이 國內외에 충격적인 波紋을 던질 要素를 다분히 가졌음은 주로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國外에 대해서 朴大統領의 이와같은 發言은 비록 사실상 받아들여질 可能性이 전혀없는 엄격한 條件附이기는 하지만, 韓國의 統一문제에 관하여

過去20年間 거의 化石처럼 굳어져있던 大韓民國政府의 態度에 처음으로 柔軟性 있는 變化의 可能性이 있는것으로 反映될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變化可能性의 示唆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진 東西간의 解氷「무드」와 팽배한 平和氣運 등 國際潮流 가운데서 國際적으로 韓國에 대한 印象을 好轉케 하고, 더많은 外交的인 支持를 獲得케 하는데 크게 有助할것이 확실하다. 이點, 朴大統領의 8·15構想이 무엇보다 外交的인 考慮를 重視한 것이라는 評價를 받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美蘇兩大國의 共存體制의 確立, 西獨·蘇聯의 不可侵條約締結, 中·蘇紛爭으로 露呈된 「이데올로기」 戰爭의 褪色化, 「우·탄트」 「유엔」事務總長에 의한 「유니버설리즘」의 제창 등 일련의 國際情勢의 變化는 「유엔」舞臺에 있어서도 날이갈수록 韓國의 철저한 反共主義的 立場을 곤란케 하고 있었거니와, 이에 결들여 끈질기게 展開돼온 北傀측의 교묘한 偽裝平和 統一攻勢로 말미암아 「유엔」에서의 韓國支持票 유지에도 중대한 威脅이 加重된 것이 오늘의 實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情勢下, 우리 政府가 統一문제에 대해 보다 能動的이고 前進的인 姿勢를 보임으로써 國際的인 「이미지」 改善에 「이니셔티브」를 取한다는 것은 극히 必要하고 賢明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변함없는 課題 「힘의 培養」)

그러나 朴大統領의 이러한 構想이 발표됐다 하여 國內적으로 곧장 우리의 統一政策에 어떤 根本的인 轉換이 있을 것으로 速斷해서는 안될 것이다.

朴大統領도 지적했듯이 『國土統一이 아무리 切實하다 하더라도 同族의 流血을 강요하는 戰爭만은 피하여야』하고, 또 그런 한편 『全國土 要塞化, 全人民 武裝化』의 「슬로건」아래 虎視眈眈 南侵을 노리고 있는 北傀의 存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結局 모든 面에서의 「힘의 培養」이란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現實的 課題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朴大統領이 이번 演說에서 北傀에 대하여 「善意의 競

爭]을 云謂한 것이 論理上 北傀라는 不法集團의 存在의 事實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의 당연한 疑問에 대해서도 國民으로서는 마땅히 그 眞意를 정확히 파악해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의 上記 發言은 韓半島의 北半部를 強占하고 있는 反國家團體로서 엄연히 事實上 存在하고 있는 北傀에 대하여 國家元首로서 다시 한번 그들의 不法的인 武力使用拋棄를 命令함으로써 法的으로는 再次 「降伏」을 要求한 것 以外의 他意가 있을 수 없음을 明白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특히 警戒해야 할 것은 이로써 國內外에 平和統一「무드」가 造成되어 이로 말미암아 일종의 社會的 混亂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點이다. 解放後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統一論議가 일종의 「터부」視돼왔고, 때로는 政治的 彈壓의 對象이 돼왔는데, 이번 朴大統領의 宣言을 계기로 統一論에 위싸고 國內的으로 混亂이 再演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豫見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우기 共和黨은 朴大統領의 前記 聲明과 관련하여 재빨리 反共法·國家保安法 등의 改正 用意까지 表明하고 나섰는데, 이러한 法改正만으로는 平和統一論議를 完全開放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憲法的 要請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性急한 統一「무드」 警戒)

北傀는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 말고서 刑法上으로도 內亂行爲를 계속하고 있는 犯罪集團인데, 이는 우리의 國土를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의 憲法上 당연한 論理的 歸結일 것이다. 西獨의 경우 國民이 東獨에 往來하거나 西獨政府 자신이 東獨의 事實상 또는 法的 承認까지를 考慮할 수 있는 것은 그 基本法(憲法) 자체가 그 前文 및 本文146條에서 西獨領域만을 規律하는 「暫定法」임을 못박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이 點 처음부터 完全國家로서 大韓民國의 存立을 규정한 우리 憲法精神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朴大統領의 새 平和統一構想은 누구의 눈에도 前進的인 것이요, 이는 우리 國力の 伸張의 결과로 나타난 強한 自信에 立脚한 것으로 統一에 대한 겨레의 宿望이 깊으면 깊을수록 熱烈한 환영을 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의 現行憲法下에서는 여하한 형태로든지, 北愧가 主張해오던 南北간의 直接對話나 南北聯邦論 또는 同時選舉論 등은 엄연히 國憲에 違背되는 것인만큼 누구도 이점에 대한 警覺心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만일 부질없는 統一論議와 性急한 法改正論 등으로 社會不安을 조성하거나 感情的인 選舉 「이슈」로 化한다면 이는 우리의 國益伸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混亂만을 조성할 것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다. 北韓反應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인민은 더욱 억세게 싸우자 (1970. 8. 22 로동신문 社說)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 지 25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分裂의 비극을 겪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국토의 兩斷과 民族分裂의 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빚어진 것은 美帝國主義者들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책동때문이며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남조선피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때문이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이 청산되었더라면 우리 조국은 벌써 오래 전에 통일되었을 것이며 조선인민은 한강토우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 것이다.

亞細亞侵略의 흉악한 야망을 품고 남조선에 기어든 미제국주의자들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총칼로 가로막으면서 남조선을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락시켰으며 전조선을 침략하려고 세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년간 조선에서 세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발광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情勢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

미제의 더러운 주구인 朴正熙徒黨은 미제의 이러한 侵略과 戰爭挑發 政策을 執行하는데 더욱 더 열을 올리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폭압을 強化하고 있다.

미제의 침략정책과 民族分裂政策을 떠받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이 賣國 逆賊은 입만 벌리면 <유엔감시하의 통일>이요, <송공통일>이요 하고 떠벌였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런데 朴正熙逆徒는 지난 8月 15日 갑자기 이른바 <慶祝辭>라는 것을 늘어놓으면서 그 무슨 <平和統一構想>이라는 외마디 소리를 떠벌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虛偽와 欺瞞으로 가득차 있으며 統一問題를 실현할 수 있는 아무런 실천적 방도도 없는 朴正熙逆徒의 이 녀두리는 <北進統一>에 대한 종래의 책동을 <平和統一>의 보자기로 감싼데 불과한 것이다.

원래 美帝侵略者들의 충실한 주구이며 나라의 平和的統一에 대하여는 꿈조차 꾸지 않고 있는 이 賣國奴의 입에서 신통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한 것이다.

그러면 朴正熙逆徒가 갑자기 <平和統一構想>이요, 뭐요 하고 떠벌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조선인민은 우리 당과 共和國 政府의 가장 정당한 祖國의 自主的平和 統一方針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더욱더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 당과 共和國 政府의 祖國 統一方針을 지지하여 나서고 있으며 나라의 統一을 妨害하고 자기들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美帝와 朴正熙傀儡徒黨을 반대하여 날을 따라
역세계 싸우고 있다. 또한 世界의 進步的 人민들이 우리 당과 共和國 政府
의 公明正大的 祖國의 自主的平和統一方針을 어느때보다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
며 조선의 분렬과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을 획책하는 美帝와 朴正熙傀儡徒
黨을 糾彈하고 있다.

朴正熙傀儡徒黨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극도로 孤立되고 排擊당하고 있으며 남
조선인민들의 양양되는 革命鬪爭에 의하여 風前燈火의 運命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情勢하에서 美帝의 사촉밑에 朴正熙徒黨은 <平和統一>의 낙두리로 남
조선인민들을 기만하며 祖國의 統一과 자신의 自由와 解放을 위한 그들의 투
쟁을 녹젓히려고 얇은 피를 부리고 있으며 세계여론을 그릇되게 이끌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賣國逆賊은 이러한 연극으로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완전히 排斥
당하고 있는 가련한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명년도에
진행되는 피뢰 <大統領選舉>에서 다시 한번 <大統領>감투를 써보자고 하는 것이
다.

또한 朴正熙逆徒는 이러한 虛偽的인 나발을 불어댄으로써 미제와 함께 감행
하고 있는 제놈들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긴장상태가 조성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며 <美軍減縮>설의 막뒤에서 새 전쟁 挑發策動을 다그치
려는 것이다.

美帝와 朴正熙徒黨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인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平
和愛護人民들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으며 항의규탄의 세찬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의 지시밑에 朴正熙徒黨은 사람들을 欺瞞하기 위하여 설
익고 拙劣한 연극이나마 꾸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금번 朴正熙逆徒의 낙두리는 물론 美帝國主義者들이 작성한 원고를 고스란히
외운데 불과한 것이다.

美帝國主義者들은 흉악한 양면술책의 꼭두각시로 朴正熙徒黨을 내세움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침략과 전쟁도발 정책, 민족분열정책을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美帝와 朴正熙徒黨은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더러운 정체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犯罪的行爲를 가리울 수 없다.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祖國이 人工的으로 분열된 첫날부터 祖國을 自主的으로,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金日成동지께서는 祖國統一問題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共和國政府가 일관하게 主張하고 있는 祖國統一의 基本方針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 원칙에서 南北統一을 實現하자는 것 입니다. 우리의 이 平和統一方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가장 公明正大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自由와 獨立의 기치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84페이지)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平和的統一方針에 따라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祖國을 統一하기 위한 가장 合理的이고 具體的인 方案들을 내놓았다.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조건하에서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民主主義的으로 실시되는 자유로운 南北總選舉를 통하여 각계각층 인민의 代表들을 망라하는 統一的인 中央政府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統一問題를 해결할 데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正當한 방안이며 가장 公明정대한 方案이다.

조선의 統一問題는 조선인민내부문제이며 우리 인민의 民族自決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統一問題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간 후 外勢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民主主義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조선의 統一問題가 해결될 수 있으며 조선인민의 自主權과 民族的 獨立을 保障할 수 있다.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조선총선거의 실시에 응할 수 없다면 완전한 統一을 실현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제기되는 민족의 當面問題들을 해결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서 南北朝鮮聯邦制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政治問題와는 관계없이 분렬로 말미암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처자, 친척, 친우들의 절실한 념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지체없이 남북간의 通商과 來往, 通信과 文化交流를 實現할 것을 提起하였다.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또한 나라의 統一을 達成함에 있어서 南北間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조선간에 平和協定을 체결하며 남북의 兵力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縮小할 것을 提議하였다.

실로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가 내놓은 방안에는 자유로운 南北總選舉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統一을 이룩하는 방도 뿐만 아니라 一連의 中間절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統一으로 접근하는 방도까지 제기되어 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政治問題와는 관계없이 분렬로 말미암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一連의 人道主義的 措置라도 취할 具體的인 對策들이 提起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는 지난 20여년동안 始終一貫하게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앞당기는데 合當하고 現實的이라고 認定되는 온갖 방도와 대책을 다 강구하였다.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의 이 正當하고 合理的인 提案들은 祖國統一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支持를 받았으며 전세계 모든 平和愛護人民들의 한결같은 共感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美帝國主義者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이 모든 것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우리 당과 共和國政府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侵略的 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다.

朴正熙逆徒는 이번에도 우리의 統一方案을 악의에 차서 비방하면서 반대하였다.

원래 朴正熙傀儡徒黨은 4·19인민봉기 이후 南朝鮮青年學生들과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平和統一에 대한 기운이 높아가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화산처럼 폭발하자 총칼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美帝國主義者들이 선발한 군사깡패이다.

바로 朴正熙徒黨이 괴뢰정권에 들어 앉은 후 한것이란 미제가 쥐여준 총칼을 휘두르면서 애국적 인민들을 彈壓 虐殺하고 미제상전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나라의 統一問題 해결도상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한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매족행위뿐이다.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나라의 自主的平和統一을 실현함에 있어서 선결조건으로 되는 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이다.

美帝侵略軍의 남조선강점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기본원인이며 우리 나라의 自主的이고 民主主義的인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祖國의 自主的平和統一에 대하여 말할수조차 없다.

그러나 朴正熙徒黨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애걸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있는 미제의 더러운 주구이다.

朴正熙徒黨은 피뢰정권에 들어왔은 첫날부터 입만 벌리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벌여 대고 있으며 남조선을 송두리채 美帝의 植民地로, 軍事基地로 내맡기고 있다.

오늘 朴正熙徒黨은 미제가 남조선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欺瞞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의 일부를 <감축>할 것이라는 政治的 謀略을 꾸며대자 질겁한 것처럼 상전의 옷자락에 매어달려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복걸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平和統一>을 운운하는 朴正熙徒黨의 나발이야말로 실로 言語道斷이다.

나라의 自主的平和統一을 념원하는 인민들에 대한 이보다 더 심한 우롱과 기만행위가 또 어데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朴正熙徒黨은 미제의 조종밑에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수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기타 온갖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世界反動勢力의 共同侵略에 내어맡기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침투한 日本獨占은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침략지반을 강화하고 있다.

日本軍國主義者들은 朴正熙徒黨을 디딤돌로 하여 남조선을 예속화하기에 피눈이 되고 있으며 군사적 침략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려고 꾀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면서 朴正熙徒黨이 떠벌이는 <平和統一>이란 실로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결국 朴正熙徒黨의 녀두리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할 뿐만 아니라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미제의 강도적 野望을 代辯한데 불과한 것이다. 朴正熙徒黨은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이 賣國逆賊은 〈平和統一〉이란 것을 지껄이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여야 한다고 떠벌이었다.

이것은 〈유엔〉의 간판을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의 조선에 대한 侵略을 허락하라는 수작인 것이다.

더우기 朴正熙徒黨은 〈경축사〉에서 저들의 힘이 《북녘에까지 넘쳐흐르게 해야 하겠다》고 하였으며 뒤이어 〈기자회견〉과 〈훈령〉들을 통하여 〈유엔감시하의 통일〉에 대한 저들의 기본립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유엔감시하의 통일〉이란 미제가 武力侵略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野望 즉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政治的 術策으로 실현하려는 策動이라는 것은 이미 폭로된지 오래다.

朴正熙徒黨은 이처럼 유엔의 간판밑에 전조선을 強占하려는 상진의 侵略政策을 집행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朴正熙徒黨의 〈平和統一構想〉이란 이처럼 〈北進統一〉에 보자기를 바꾸어 씌운 것이다.

이른바 〈平和統一構想〉에 대한 朴正熙徒黨의 녀두리의 추악한 정체는 나라의 통일을 녀원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흉악한 교형리로서 그가 저지른 죄행에 의해서도 폭로되고 있다.

朴正熙徒黨이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남조선에서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그것은 〈國是違反〉으로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품고있는 統一에 대한 지향을 입밖에 내었다고 하여 남조선에서 수많은 애국적 로동자, 농민 및 학생, 지식인, 언론인들과 정계인사들이 체포투옥학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南北統一을 主張하였다고 하여

수다한 출판물들이 폐간되었으며 수많은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탄압해산당하였다.

朴正熙徒黨은 최근에만 하여도 日本軍國主義의 재침책동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民主主義的 발전을 요구하는 <백서>를 내었다고 하여 애국적 학생들을 탄압하였다.

統一을 지향하는 愛國的人民들을 피문은 칼로 가혹하게 탄압학살하는 교형리로서의 악명을 떨치고 있는 朴正熙徒黨이 가소로운 녀두리로 平和的統一의 원수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울 수는 없다.

남조선의 지배층들까지도 朴正熙逆徒의 녀두리와 관련하여 <愛國的인 統一論을 무자비하게 彈壓>하였으며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체포투옥하는 악법을 조작한 이 매국노의 죄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어 朴正熙徒黨은 이번에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平和統一>이란것을 떠벌이면서도 제놈의 말을 되풀이하는 외에는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에 대하여는 의조차 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平和統一에 대한 말만 하여도 彈壓하겠다는 것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朴正熙徒黨의 <平和統一>이란 하나의 政治漫畫인 것이다.

朴正熙徒黨은 이번에 미제가 만든 곡조를 불어대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며 새 戰爭 도발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미제의 흉악한 企圖와 미제의 주구로서 그를 충실히 집행할데 대한 자신의 더러운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朴正熙徒黨은 이른바 <경축사>와 그후의 기자회견에서 統一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통일의 노력>은 <70년대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느니, 지금은 時機尙早라느니 하고 뇌까렸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

민들의 鬪爭을 彈壓하기 위하여 <7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 <통일을 론>할 수 있다고 한 지난날의 녀두리를 되뇌인 것으로서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平和統一構想>이란 외마디소리조차 완전한 공나발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더우기 朴正熙徒黨은 이번에도 이른바 <南侵>에 대한 허위선전을 되풀이하면서 <남침>을 그만두어야 한다느니, 남조선에서 <暴力革命>을 그만두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껄여대었다.

이 얼마나 미제의 더러운 줄개의 파렴치한 수작인가.

美帝와 朴正熙徒黨이 조선에서 새 戰爭 도발책동을 격화시키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이것을 이른바 <남침>의 위협이라는 허위선전의 연막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는 것은 폭로된지 오래다. 朴正熙逆徒의 <남침>에 대한 지껄임은 미제와 계놈들의 戰爭挑發策動을 合理化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날조된 구실로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에서의 <暴力革命>운운에 대하여 말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朴正熙徒黨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미제와 朴正熙徒黨의 식민지테로統治가 가져온 웅당한 귀결인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朴正熙徒黨의 폭압과 착취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분연히 鬪爭에 蹶起한 것이다. 朴正熙徒黨은 남조선 인민들이 鬪爭을 포기하고 美帝의 植民地 노예의 처지를 감수할 것을 감히 떠벌임으로써 賣國逆賊으로서의 본색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朴正熙逆徒의 <統一構想>이요 하는 것은 용납받지 못할 賣國逆賊으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상전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녀두리이다. 그것은 또한 낙손도당의 <平和>책략의 한고리로서 祖國統一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저들의 侵略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미제가 꾸며낸 가소로운 연극이다. 조선의 平和的統一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통일의 근본장이며 조선에

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美帝侵略軍을 남조선에서 撤去시켜야 한다.

오직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함으로써만 조선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統一問題가 해결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가 물러간 후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해서만 自主的으로 그리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이 실현될 수 있다. <유엔>이나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조선의 平和的統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日本軍國主義者들도 물러가야 한다.

또한 美帝의 남조선강점을 애걸하고 日本軍國主義 侵略勢力과 외국의 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매국적행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賣國政策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祖國의 自主的平和統一을 위하여 투쟁한 뜻으로 체포구금된 모든 애국자들과 인사들이 즉시 무조건 석방되어야 하며 조국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모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들에 대한 온갖 탄압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 自由로운 活動이 保障되어야 한다.

남조선의 愛國者들과 인민들은 朴正熙徒黨의 기만술책에 속지 말아야 하며 농들의 교활한 술책을 짓부시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平和的統一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祖國統一은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 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自由와 獨立의 旗幟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의 強力한 武器이다》, 단행본, 84~85페이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몰아내며 朴正熙傀儡徒黨을 때려부시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지난 25년간의 體驗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自由와 解放을 쟁취할 수 있으며 祖國의 統一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反美救國鬭爭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제를 몰아내고 朴正熙徒黨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

동시에 美帝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드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세력을 내쫓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모든 活動의 自由를 포함한 民主主義的 自由와 權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朴正熙徒黨의 파쇼적폭압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식민지 파쇼 통치의 악랄한 집행자이며 반동적인 군사테로특무집단의 현군사파쇼정권을 뒤집어 엎고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人民의 政權을 樹立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을 뒤집어 엎고 人民의 政權이 수립되든지 또는 民主主義的 勢力이 政權에 들어앉으면 우리는 그들과 祖國統一問題를 가지고 平和的으로 協商할 것이다.

祖國을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으로, 平和的方法으로 統一하려는 우리 立場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正當한 統一方案을 지지하며 진정으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념원하는 사람과는 아무때나 허심하고 진지하게 상론할 용의가 있다.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祖國統一의 물질적 담보인 북반부 혁명 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며 남조선인민들의 反美救國鬭爭을 積極的으로 支持聲援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鬭爭에 의하여 美帝는 남조선에서 반드시 쫓겨나고 朴正熙徒黨은 타도되고야 말 것이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 위업은 成就되고야 말 것이다.

2. 「8. 12」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 關聯資料

가. 「8. 12」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

(1971. 8. 12. 大韓赤十字社 總裁 聲明)

四半世紀에 걸친 南北間의 障壁은 온갖 民族悲劇의 源泉이며 특히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들의 悲劇은 今世紀 人類의 象徴的 悲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狀態는 人類愛와 災難의 救護를 위한 奉仕를 基本으로 하는 赤十字精神을 具現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離散家族의 悲劇은 南北間의 障壁이 解消됨으로써 完全히 終熄될 것이나, 이것이 短時日內에 이룩되기 어려운 現實下에서 적어도 1千萬 南北 離散家族들의 實態를 確認하고, 이들의 消息을 알려주며 再會를 斡旋하는 「家族찾기 運動」만이라도 于先 展開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大韓赤十字社를 代表하여 赤十字精神에 따라 南北間의 純粹한 人道的 問題들을 早速히 解決할 目的으로 北韓赤十字社에 대해 다음과 같이 提議합니다.

첫째, 南北間의 家族찾기 運動을 具體的으로 協議하기 위해 가까운 時日內에 南北 赤十字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會談할 것을 提議한다.

둘째, 本會談의 節次上의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月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한다.

以上과 같은 우리의 提議에 대하여 北韓赤十字社가 放送, 通信網 또는 國際赤十字社를 通해서나 餘他 可能的 方法으로 그 意思를 우리에게 傳達하여 줄 것을 希望한다.

우리는 北韓赤十字社가 赤十字精神과 그 基本 任務에 立脚하여 이러한 純粹한 人道的 提議를 好意的으로 받아 들일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大韓赤十字社 總裁 崔斗善

※ 1971. 8. 12, 10:00 大韓赤十字社 會議室에서 發表後 1971. 8. 20 第1次 派遣員 接觸時 北赤에 文書로 傳達

나. 國內反應

○ 南北對話의 試圖

(1971. 8. 13 東亞日報 社說)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는 12日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 찾기運動을 벌이도록 北韓赤十字社에 대해 정식 提議했다. 人爲的인 장벽으로 말미암아 온갖 民族悲劇은 南北 分斷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血緣關係를 斷絶한 데도 그 主因이 있었음을 우리는 하루도 잊어본 일이 없었다.

國土分斷이란 悲劇은 결코 우리 韓半島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다. 2次大戰의 副産物로서 이는 強大國들의 勢力角逐 地帶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으로 돼왔지만 外面的인 地緣隔離를 초월해 內的인 血緣關係만은 그래도 어떠한 形式과 過程을 밟아서라도 소통과 再會 機會가 부여되고 있었음을 잊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單一民族으로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우리 韓民族은 人類愛의 始初인 血緣關係가 이처럼 四半世紀 동안이나 斷絶되고 있었던 것은 어느모로 보나 民族的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時點에 있어 大韓赤十字社가 순수한 人道主義와 崇高한 赤十字精神에 立脚해 1千萬에 達한 離散家族을 찾자고 提議한 것은 진심으로 이를 歡迎해 마지않는 바 이다.

이번 提議가 이처럼 순수하고 崇高한 것이라면 가령 極東地域에서 東西 解氷「무드」가 있건 없건 그리고 政治的인 意圖가 그간에 介在돼 있건 말건 우리는 이를 구태여 이러한 문제와 結付시키려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提議가 비록 南北間의 어느 側에서 먼저 나왔다 해도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었고 또 누가 受動的인 立場에 놓여 있는가를 가려보고 싶지도 않다.

다만 民族的인 수치를 제거해 보자는 念願이 實行하면 할수록 사소한 低次元的인 地緣問題는 自然的으로 解決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大韓赤十字社는 이러한 高次元的인 民族의 當爲를 強調키 위해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

들의 悲劇은 今世紀 人類의 상징적인 悲劇이라고 지적했고 만약 이 運動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 경우에는 統一宿願의 실마리 會談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民族的인 공명을 사고도 남음이 있겠다.

이번 提議는 過去 어느 때와도 달리 南北間의 對話와 誠意를 촉구하기 위해 신축성과 여유가 간직 돼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흐뭇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言語와 文字를 使用하는데 있어도 자극적인 대목을 회피하고 說得力있는 內容을 담은 것은 그 一端의 例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이번 提議의 動機가 순수한 것일진대 北韓赤十字社로서도 이를 무조건 拒否하고 반박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세삼 強大國들의 勢力角逐으로 말미암아 생긴 人爲的인 장벽과 함께 血緣關係가 오랫동안 斷絶된 것을 탓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의 力量과 民族愛로써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氣運을 포착해야 할 단계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過去와 같은 極限的인 敵對關係를 止揚하고 對話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이러한 家族찾기 運動이라도 한번 벌여보자는 動機를 끝내 無視해 버린다면 이는 民族的인 千秋의 遺恨이 될 뿐만 아니라 韓民族이 지닌 人道主義的 民族性에 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명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大韓赤十字社가 제의한 家族찾기 運動이 다소라도 成果를 거둘 경우에는 지금까지 버르고 있었던 極限的인 對立도 이를 계기로 解氷「무드」등을 促進하게 되고 對話의 廣場은 물론 南北의 交流와 協商까지도 트일 수 있는 序曲이 될 것을 누군들 否認할 수 있으리.

우리는 지금 世界的인 潮流가 어떠한 方向으로 指向하고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洞察할 必要가 있다. 2次 戰後의 착잡한 冷戰의 時代는 對決의 時代로부터 協商의 時代로 轉換돼 가고 있는 한편 脫「이데올로기」 時代는 巴야흐로 種族의 再團結을 促求하는 時期로 접어들고 있음을 똑바로 認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人類의 思潮의 變遷과 發展은 寸時의 停滯와 猶豫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宇宙開發이 달 世界도 征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과연 협소한 이 韓半島에서나마 아직도 國土分斷과 血緣의 斷絶을 감수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또한 「닉슨」과 毛澤東이 對話를 나누게 되고 「슬라브」民族과 漢民族이 으르렁대고 있는 이 時點에서도 아직까지 낡은 「이데올로기」時代와 궁하기 짝이 없는 自主路線이란 理論에 사로잡힌 나머지 國土統一이라는 民族의 悲願을 영원히 外面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列強들의 幕後홍정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他意的으로 強要되기에 앞서 우리 民族의 繁榮을 우리의 自力으로 開拓할 것을 反省하지 않아서는 아니되겠다.

北韓赤十字社를 포함한 北韓同胞들은 지난 날처럼 疑心暗鬼식의 態度를 짓고 閉鎖된 門戶를 활짝 열어 大韓赤十字社가 모처럼 提議한 순수한 動機를 받아들이다.

이리하여 오는 10月안으로 豫備會談을 가짐으로써 強大國들의 幕後홍정에 對備키 위한 우리 韓民族의 진정한 姿勢를 과시할 時期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 赤十字社의 對北提議

—人道的인 接觸은 가장 現實的인 第1步—

(1971. 8. 13 朝鮮日報 社說)

大韓赤十字社가 어제 北韓赤十字社에 대하여 提議한 南北家族찾기運動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感動的인 것이다. 그리고 그 提議가 당장 實現될 수 있는 內容을 담고 있으며 和解時代에 處한 南北韓 關係를 打開함에 있어서 가장 現實的인 第1步가 될 수 있다는 點에서 韓民族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成功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터이다. 解放과 함께 있는

國際列強에 의한 南北兩斷으로, 그리고 6·25의 처참한 戰亂으로 家族들이 뿔뿔이 生離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南北間의 障壁으로 가로막힌 이들 離散家族들은 그후 20여년의 歲月을 血肉의 情을 못잊어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다.

그동안도 離散家族의 所在把握과 交信, 그리고 再會를 위한 움직임은 없지 않았다. 「제네바」의 國際赤十字社로, 「유엔」으로 찾아가 呼訴도 하였으며 拉北人士送還을 위한 百萬人 署名運動을 벌여 國際的인 關心을 促求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어붙은 國際狀況은 그러한 애절한 호소를 外面, 모든 努力이 虛事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國際狀況은 달라져가고 있으며 冷戰時代로부터 和解時代로 轉換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變化된 狀況에서 다른 거창한 일들은 몰라도 우선 人道的인 見地에서 離散家族들의 書信이나 再會는 實現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點에서 大韓赤十字社의 이번 提議는 때에 맞는 것이라 하겠다.

그 提議는 또 合理性과 誠實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거부될 수 없는 性格의 것이라고 본다. 北韓赤十字社라는 呼稱을 使用하였을 뿐 아니라 南北 離散家族이라고만 말하고 拉北 등의 表現을 삼간 것도 注目해야 할 줄 안다.

이번의 提議는 南北間 緊張緩和와 統一이라는 보다 높은 次元의 脈絡에서 把握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南北間에는 窮極의 目標인 統一까지의 過程에서 거쳐야 할 일, 解決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데 出發은 政治나 軍事의 難題부터가 아니라 非政治的인 작은 일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離散家族들의 가족찾기 運動은 가장 좋은 始發點이다. 이 運動이 成果를 거두면 崔斗善 總裁도 말한 바와같이 다른 人道的인 問題로 幅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然後에 나중에는 政治的인 會談으로 發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宣傳術策이 아니라 眞正으로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願하

고 同胞의 苦痛을 줄이기 위해 努力할 誠意가 있다면 政治會談 云云하고 억
지를 쓸것이 아니라 北韓赤十字社에 의한 이번 提議의 受諾이 있어야 마땅하
다고 強調하는 것이다. 이번 提議의 受諾與否는 誠意有無를 立證할 試金石과
같다고도 하겠다. 우리는 이와같이 大韓赤十字社의 提議를 歡迎하고 支持하면
서도 앞으로 北韓赤十字社가 受諾할 경우 協商過程이 매우 어렵고 지루할 수
도 있다는 것을 豫見한다. 자칫 政治的인 宣傳舞臺로 惡用될 可能性도 充分
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離散家族의 所在把握, 交信方
法, 再會意思 確認이나 節次 等 技術的인 難點이 많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
다. 아뭏든 誠意와 忍耐로써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한편 家族찾기運動 提議에 붙여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北韓赤十字社의
肯定的인 回答이 있을때까지는 그 以上の 提議를 하거나 論議를 하는 데에
慎重을 期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誠實하고도 合理的인 提議에 肯定的인 回
답이 있고 그 協商이 열매를 맺을 때에야만, 오로지 그 때에야만 다음 段
階로 前進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金日成은 1千萬 家族에 答하라

—그대는 共產主義者이기 前에 韓國人이다—

(1971. 8. 13 한국일보 社說)

韓國사람이라면 南에 있거나 北에 있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너무
나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에 있는 大韓赤十字社가
北을 향해 우리들의 흩어진 家族들을 찾아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民族分斷
4半世紀가 넘는 오늘에 와서 이런 말을 건네게 되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平壤에 있는 赤十字社가 우리들의 갈라진 眷屬들을 함께 찾아 나선다는 것
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千萬에 달하는 同胞들이 飢餓의 生死도 모른 채 南과 北으로 갈라져 있다는 이 非人道的인 事實 자체이다. 그러나 이 現實에서 人爲的인 家族의 불행을 더 以上 끌어간다는 것은 人道主義에 어긋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흩어진 家族을 찾자」 우리는 이제 겨우 이런 말을 發言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이 말을 떠보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낄 程度가 아닌가. 우리가 서로 그 말을 몰라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갈라 선뒤에 발하는 제1성이나 다름없다. 남녘의 이 부름에 대해서 북녘은 어떻게 答할 것인가?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의 제안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 첫째, 南北間의 家族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協議하기 위해 가까운 時日에 南北韓 赤十字社 代表會談을 갖자. 둘째, 이 會談의 節次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月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갖자는 것이다. 崔 總裁는 예비회담에서 합의 된다면 서울이든 平壤이든 또는 제3의 어떤 場所에라도 가서 회담에 응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赤十字 精神에 따라 南北間의 순수한 人道的 問題들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의 赤十字가 平壤의 赤十字社에 던지는 제안이다. 그렇다고 政府와 협의없이 大韓赤十字社가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崔 總裁는 政府가 이 運動에 전폭 협조를 약속했다고 덧붙인다.

사실 政府 代辯人은 『이 提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뒷받침을 다할 用意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다짐했다.

그럼 北韓赤十字社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이 運動은 民族의 悲哀를 덜기 위해서 흩어진 家族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再會를 앞선하자는 人道的 運動 提案이므로 赤十字 精神을 구현해야 할 北韓赤十字社가 그것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北傀는 지난 7月下旬 韓國의 執權黨을 포함한 모든 政黨, 大衆團體 및

個別的 人士와 언제든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大韓赤十字社의 제안이 北愧의 새로운 態度表明이 있자마자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다. 北韓赤十字社가 家族찾기 運動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올 가망은 그만큼 클지 모른다.

우리 民族統一에의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그러나 千里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는가. 동포애와 人道主義의 따뜻한 체온없이 어찌 감히 쪼개진 동족이 합쳐질 수 있을 것인가.

北韓赤十字社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단계를 오르려 하려는 것인가!

金日成은 답하라. 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부름에 말하라. 그가 제기한 韓國政黨 社會團體 및 個人과의 접촉용의를 이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 중요한 것은 作心如何다. 이 赤十字精神의 한 結晶에 호응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 올 전문적 문제들은 협의해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코리안」이고 그 다음에 共產主義者다』 이것은 最近 어느 外國記者가 쓴 北韓 踏查記에 인용된 말이다. 平壤의 소위 한 고위인사의 말이라고 인용되었다. 신문 독자들이 이런 말을 그저 흘려 보내지는 않는다. 平壤은 外國人에게 이런 녀두리를 털어 놓기 前에 남쪽에서 띄어보내는 한 동족으로부터의 인도주의의 호소에 주저말고 대답하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서울의 赤十字社는 기다린다. 남쪽에 있는 무수한 흩어진 家族들도 기다린다. 아니 서울이 發한 인도주의의 목소리를 들은 南과 北의 온 民族이 그것을 기다린다. 平壤은 모두를 실망시키지 말라.

東「아시아」의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돌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반도는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냐는 거센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 이러한 時代的인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다시 他律의 受動體가 되

고 말 것이다. 그리고 보면 赤十字의 人道主義를 매개로 한 南北의 만남은 그들 사이의 오래 끊겼던 對話를 열어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너무나 중대한 새 출발이 될 것이다.

○ 南北韓 赤十字會談 提議

(1971. 8. 13 中央日報 社說)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12日 北傀赤十字社를 향해 ① 南北間의 家族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時日안에 南北赤十字 代表가 한 자리에 마주앉아 會談할 것과 ② 本會議의 節次上 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10月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개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大韓赤十字社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所以는 南北間의 장벽이 短時日內에 解消되기 어려운 現實下에서 「적어도 1千萬 南北離散들의 實態를 확인하고 이들의 消息을 알려주며 再會를 앞선하는 家族찾기 運動만이라도 우선 展開해야 하겠다」는 데 있다.

(안 받아들일 수 없는 提案)

大韓赤十字社의 이러한 提案은 休戰 동결상황이 성립된 이후 한국으로서는 가장 劃期的인 제안이다. 그도 그럴 것이 南北間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데 非政治的인 分野에서 交流를 시도하자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具體的 提案의 形式을 취하지 못했었는데 今次 赤十字社 提案은 北韓 赤十字社를 指名해서 提案한 것일 뿐더러 그 無條件的인 內容이나 그밖의 여러 客觀的 與件으로 보아 充分히 그 實現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南北韓間의 긴장완화와 平和統一에 관한 提案으로서는 지금까지도 그 前例가 全無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사실상 相對方이 受諾할 수 없는 條件을 붙인 提案이었던 것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實例로 駐韓美軍의 撤收나 韓·美防衛條約, 韓·日條約 등의 폐

기를 條件附로 한 北傀側의 이른바 8個項 統一方案(71年 4月 12日)이나 우리 측의 「8·15宣言」(70年 8月 15日)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傀가 「유엔」權威, 權能을 認定하고 對南戰爭 排發行爲를 中止할 것을 內外에 宣言하라는 등 條件을 붙인 平和宣言이 雙方에 依해 事實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性格의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大韓赤十字社의 南北會談 提議는 그러한 一切의 條件이 붙어있지 않다는 點에서 크게 注目할 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離散家族의 悲劇을 해결하기 위한 家族찾기는 「이데올로기」나 政治權力 대립 이전의 問題로서 人道的인 面에서 반드시 解決을 보아야 할 과제인데 最近 벌어지고 있는 國際權力 政治情勢 解氷의 潮流에 발을 맞추어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 赤十字會談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分明히 환영할 일이다.

赤十字會談 제의에 대해서 北傀가 어떠한 反應을 보일는지 現在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北韓赤十字가 赤十字 精神과 그 基本 任務에 充實코자 한다면 이 제의의 수락을 망설일 名分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統一宿願에 한가닥 실마리)

最近 北傀는 大韓民國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 혹은 個人을 상대로 協商을 벌이자는 提案을 내세워 왔는데 이러한 提案을 내세운 北傀가 만약에 赤十字會談 제의마저 수락을 거부하거나 혹은 망설인다면 그들이 되풀이 宣傳하고 있는 平和提案은 모두 거짓이고 그들은 南北의 平和統一을 願하기는 고사하고 分斷이 자아낸 民族의 現實的인 고통과 희생을 조금도 경감할 意思가 없음을 反證하게 될 것이다.

北傀가 緊張緩和와 平和의 到來를 다소라도 원한다면 北韓赤十字社로 하여금 大韓赤十字社 提案을 무조건 또 즉각 받아들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同時에 北傀는 이 會談提議를 政治的으로 惡用할 底意를 갖고 會談開催에 까다로운 條件을 붙이거나 혹은 이 會談은 本來의 目的과 달리 政治協商 會談

으로 하자는 등의 逆提案을 가지고 民族의 숙원인 1千萬 家族찾기 運動을 그 攄에서부터 잘라버리는 反動的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赤十字會談이 열리고 또 그 會談結果가 좋은 方向으로 結實을 보게 되면 이는 統一의 숙원을 이루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측의 希望대로 赤十字 會談이 열릴는지, 또 열린다 하더라도 어떤 進展을 보이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오늘, 대뜸 남북한간 交流의 범위를 擴大하여 文化的인 分野에서 交流나 經濟的인 交易 혹은 政治的인 協商까지도 試圖해 보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히 시기상조이고 또 위험이 따르는 冒險일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南北關係의 改善은 北傀가 最低限 人道的인 面에서 얼마나 誠意를 表示하느냐를 보고서 점진적으로 試圖하는 것이 合理的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幻想的 期待는 禁物)

最近 우리 國會에서는 「유엔」에서 南北韓의 代表가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번에는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 赤十字會談을 正式으로 提案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南北交流의 「무드」가 단번에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여 일부층이 경거망동할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 現段階에서 「유엔」에서 南北韓의 代表가 對話하자는 주장은 南北間 敵對의 歷史的 現實을 外面하고 時流에 便乘하기를 좋아하는 國會議員의 人氣戰術밖에 안될 公算이 크다할 것이다.

그리고 赤十字會談 제안은 人道的 見地로 보나 그 誠實性으로 보나 대단히 좋은 제안이지만, 이 제안이 행해졌다고 해서 南北關係의 긴장이 당장에 解消되고 休戰線의 장벽이 뚫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國民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아주 간신히 싹트기 시작한 解氷「무드」를 誇大 解釋하여 對話나 交流의 범위를 덮어놓고 넓히자고 비약함으로써 도리어 北傀의 微笑攻勢에 놀아나 大韓民國의 反共態勢에 금이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國內 關係法의 再整備 必要)

分斷된 國家는 ① 人道的인 面에서의 交流 ② 文化的인 面에서의 交流 ③

經濟通商 ④ 政治的인 對話의 順序로 접촉을 시도해 나가야만 對立에서 오는 긴장을 풀고 平和統一의 기운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第1段階上의 제안이 처음으로 행해졌다 하여 그 결과도 보지않고 第2段階나 3~4段階로 이행하자는 것은 現實을 무시한 幻想的인 期待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 두어야 한다.

끝으로 共產主義者의 集團인 北傀 赤十字를 가리켜 北韓赤十字社로 호칭하는 것이나 또 이를 상대로 會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共產主義 團體에 대한 是認과 接觸을 禁하고 있는 現行 反共法에 저촉하는 것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같은 저촉은 赤十字 精神에 비추어 問題로 삼을 바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法은 法인 것이니 現行法을 존속시켜 가지고서는 能動的으로 우리의 國益을 追求하려는 國家活動을 해나가는데 現實的으로 지장이 있을 것이 더욱 分明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 法을 現實에 알맞도록 部分的으로라도 뜯어 고치는 것이 몇몇할 것이다. 여기에도 反共法 등 國家保安關係法 一部 改正의 必要性이 있는 것이니, 政府·國會는 反共關係 法規를 早速한 時日內에 再整備해야 할 것이다.

다. 北韓反應

○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對南便紙

(71. 8. 14)

南朝鮮赤十字社 總裁 崔斗善 貴下

貴下는 지난 8月 12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에 南北으로 갈라진 血肉들의 가족찾기 運動을 展開할 것과 이와 관련한 問題들을 協議하기 위하여 오는 10月안으로 南北朝鮮 赤十字團體들의 豫備會談을 제네바에서 가질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이것은 끊어진 겨레의 血脈을 잇고 갈라진 祖國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南朝鮮 當局에 시종일관 提起한 合理的인 方案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래 흩어진 가족들과 親戚, 親友들간에 安否를 전하고 서로 상봉하도록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문제의 하나인데 이번에 貴社에서 이것을 접수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선에서 모든 外國軍隊를 撤去시키고 어떠한 外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平和的으로 나라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하여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는 문제로부터 南北間의 書信去來와 人士來往을 실현할 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公明正大한 方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는 또다시 조국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토의하고 8個 項目의 救國方案을 提起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月 6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元首께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共和國政府의 立場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면서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어느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시었습니다.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모든 방안들과 성의있고 인내성있는 노력들은 그때마다 南北朝鮮 全體 人民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으며 全世界 公正한 社會輿論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南朝鮮 當局의 반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正當한 提案들은 아직까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20餘年の 오랜 세월을 두고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이 便紙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 安否조차 모르고 사는 民族最大의 悲劇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貴社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의 始終一貫한 애국적 호소에 호응하여 南北接觸을 實現할 勇斷을 내린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입니다.

南北朝鮮 赤十字團體 代表들이 會談에서 討議할 議題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의 절절한 념원에 비추어 볼 때 다만 가족찾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南北朝鮮 全體 人民들의 共通的인 念願과 人道主義的 原則으로부터 출발하여 南北朝鮮 赤十字團體 代表들의 會談에서 가족찾기 운동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討議할 것을 여기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1.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의 自由로운 來往과 互相訪問을 實現하는 問題
2.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간의 自由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는 問題
3. 貴下가 提議한 家族들을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해 주는 問題

우리는 南北朝鮮 赤十字團體 代表들이 순수한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한자리에 마주앉아 진지하고 허심하게 협상한다면 반드시 서로의 共通點을 發見하고 民族的 利益에 맞게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豫備會談場所와 관련한 貴下의 意見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第3國을 會談場所로 하는 것은 非民族的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民族內部 問題를 討議하는데 우리 나라 땅을 두고 무엇때문에 머나먼 다른 나라에 가서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 땅인 板門店에서 會談할 것을 제의합니다. 관문점은 제네바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만일 板門店의 會議場 施設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불합리하다면 우리는 最短時日안에 필요한 건물을 새로 짓고 會談의 成果的 進行을 위한 온갖 便宜를 提供할 充分한 用意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날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月中으로 雙方 代表들의 豫備會談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두 赤十字團體들간의 連絡方法으로는 通信이나 라디오 혹은 텔레비존을 利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으로부터 우리는 連絡의 正確性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赤十字團體의 信任狀을 가진 派遣員들이 板門店에서 書信을 交換하는 방법으로 連絡任務를 遂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는 8月 20日 12時에 우리 赤十字會의 書信을 가진 2名의 派遣員을 판문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각에 貴社의 派遣員이 현장에서 우리의 서신을 手交받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의 이 同胞愛的이며 人道主義的인 提議에 대하여 貴下의 肯定的인 回答이 있으리라는 確信을 表明합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71년 8월 14일

평 양

※ 1971. 8. 14. 12:00 平放·中放으로 報道後 1971. 8. 20 第1次 派遣員 接觸時 韓赤에 文書로 傳達

○ 南北의 障壁을 헐어 버리자

(1971. 8. 15 로동신문 論評)

어제 8月 14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中央委員會 委員長은 南北으로 갈라진 血肉들의 切切한 念願을 實現할 데 대한 問題와 關聯하여 南朝鮮 赤十字社 總裁에게 便紙를 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中央委員會 委員長은 便紙에서 南朝鮮 赤十字社總裁가 南北으로 갈라진 血肉들의 家族찾기 運動을 벌일 것을 提議한 데 대해서 歡迎하면서 20餘年 동안이나 南北으로 갈라져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의 安否조차 모르고 있는 廣範한 人民들의 念願에 비추어 南北 赤十字社 團體들이 家族찾기 運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를 包含해서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의 自由로운 相互訪問을 實現하며 그들間에 自由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며 家族를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하여 줄 데 대하여 빠른 時日內에 接觸할 것을 提議하였다.

南朝鮮 赤十字社가 南北으로 갈라진 거리들의 連繫를 實現하고 相逢을 마련할 데 대한 우리의 提議에 同意한 것은 비록 매늦은 感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다.

이것은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가 始終一貫 堅持해온 公明正大하고 合理的인 自主的 祖國統一 方案의 正當성과 생 활력을 뚜렷이 實證하는 것으로써 그의 實現을 위해서 줄기찬 鬭爭을 벌여온 우리 人民의 貴重한 勝利이다.

원래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 間에 서로 相逢하도록 하는 것은 끊어진 거리의 血脈을 잇고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가 始終一貫 提議해온 方案의 하나로써 이미 오래 前에 實現되었어야 할 問題이다.

世上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는 始終一貫 나라를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해서 모든 努力을 다

해 왔으며 또 하고 있다.

金日成 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共和國 政府가 一貫하게 主張하고 있는 祖國統一의 基本方針은 南朝鮮에서 모든 外國軍隊를 撤去시킨 다음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없이 朝鮮人民 自身の 손에 依하여 自主적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南北統一을 實現하자는 것이다.

金日成 同志께서 提示한 方針에 따라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는 南朝鮮에서 모든 外國軍隊가 撤去한 條件에서 外部勢力의 어떠한 干涉도 없이 民主主義的으로 實施하는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通하여 各界 各層 人民들의 代表들을 網羅하는 統一的인 中央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朝鮮의 統一을 實現할 데 대한 基本 方案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完全한 統一을 實現하기 前이라도 緊急하게 提起되는 民族의 當面 問題들을 解決하고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過渡的 對策으로써 南北朝鮮 聯邦制를 實施하며 南北間에 造成된 緊張狀態를 없애기 위해서 南北 朝鮮 軍隊를 縮小하고 南北 朝鮮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할 것을 提議했다.

이 밖에도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는 政治問題와는 關係없이 分裂로 인한 人民들의 苦痛을 덜어주며 南北으로 갈라진 父母, 妻子, 親戚, 親友들의 念願을 풀어주기 위해서 南北間의 人士來往과 書信去來, 通商을 實現하여 各界 各層의 使節들을 交換하고 記者, 藝術團, 體育團 등을 交流할 데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提議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問題들의 實現을 위해서 南北間의 接觸을 거듭 提議해 왔으며 南北의 諸 政黨, 社會團體, 各界 各層 人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眞摯하고 虛心하게 協商할 것을 一貫하게 主張해 왔다.

지난 4月에도 朝鮮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8個項目으로 되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方案을 내 놓았다.

특히 지난 8月 6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首班이신 金日成 同志께서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대한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다시금 明白히 밝히시고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해서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어느 時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실로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가 내 놓은 方案에는 南北 總選舉를 通해서 단번에 完全한 統一을 이룩하는 方途뿐 아니라 一連의 中間 걸음을 거쳐 漸次 完全한 統一에로 接近하는 方途까지 提起되어 있으며 分裂로 말미암은 南北 朝鮮人民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一連의 人道主義的 措置까지도 包含되어 있다.

이 方案들은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南北朝鮮 全體人民들의 한결같은 意思와 切迫한 念願을 反映한 것으로써 나라의 自主的 統一을 實現함에 있어서 唯一하게 正當한 것이며 나라의 統一에 關心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의 正當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方案이 오늘날까지 實現되지 못하고 우리 人民이 日帝統治 抑壓으로부터 벗어난 뒤 1/4世紀가 넘도록 國土兩斷과 民族分裂의 災難을 겪고 있으며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이 서로 來往은 고사하고 便紙 한장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美帝와 그 앞잡이들 때문이다.

바로 그들은 나라의 統一을 實現할 데 대한 우리의 모든 提議를 덮어 놓고 反對하면서 매번 侵略的 挑發行動과 搾削적 暴壓으로 對應해 왔다.

南朝鮮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의 接觸을 실현할 데 대한 政界人士들과 靑年學生들의 正當한 要求가 社會的 混亂을 가져오는 行動이라는 口實 밑에 苛酷하게 彈壓당하고 심지어는 統一이란 말만 해도 國是違反이라는 口實 밑에 處刑당해 왔다는 것은 온 世上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어떤 者들의 策動도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가 提議한 祖國統一 方策의 正當性을 흐리게 할 수 없었으며 그 實現을 위한 우리 人民의 鬭爭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의 祖國統一 方策들은 그의 正當性으로 해서 全體 朝鮮人民들의 絶對的인 支持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全世界 人民들의 한결같은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나라의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鬭爭은 南朝鮮 人民들 속에서도 즐기차게 展開되어 왔다. 이 環境에서 數많은 人士들과 愛國的 人民들이 刑場의 이슬로 사라지고 또한 逮捕, 投獄 당했으나 南朝鮮 人民들은 조금도 屈하지 않았다.

끊어진 겨레의 血脈을 이으며 갈라진 祖國의 統一을 實現할 데 대한 熱望으로 오늘 南朝鮮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세찬 흐름으로 化하고 있다.

南朝鮮 赤十字社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의 始終一貫한 愛國的 呼訴에 呼應해서 南北接觸을 實現하려고 나선 것은 이와같은 事態 發展의 應當한 歸結이다. 새로운 한 世代가 자라도록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은 고사하고 南北 朝鮮間의 접촉과 來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南北으로 헤어진 父母, 妻子, 親戚, 親友들이 이제 얼굴 모습조차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된 形便에서 家族들과 친척, 親友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서로 書信을 去來하고 내왕하며 相逢하는 것은 南朝鮮 全體人民의 한결같은 要求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中央委員會는 南北 赤十字社 代表會談에서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과 親戚, 親友들 間의 自由로운 來往과 相互訪問, 便紙去來 問題와 家族를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하는 問題를 同時에 討議할 것을 提議한 것이다. 이것은 分裂로 말미암은 人民들의 苦痛을 多少라도 덜어주며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에게 相逢의 기쁨을 안겨 주려는 뜨거운 同胞愛와 人道主義的 原則으로부터 出發한 것이다.

이 提議의 實現은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의 切迫한 念願

을 實現시켜 줄 뿐만 아니라 南北間의 接觸의 길을 더놓고 서로의 意思를 疏通시키며 나아가서 統一에로의 길을 열어 놓음에서 더 없이 貴重한 地답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나라의 統一은 悠久한 歷史를 通해서 分裂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 한 時도 미룰 수 없는 切迫한 課業이다. 이 切迫한 課業을 實現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에 단혀진 障壁을 허물고 對話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을 始終一貫 主張해 왔으며 또 主張하고 있다.

統一問題 解決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朝鮮사람 自身이며 따라서 그 일은 우리들 自身이 主動이 되어서 모든 問題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서로 만나야 하며, 만나서 對話를 하여야 한다. 門을 닫아메고 앉아 있기만 한다면 統一의 길은 언제까지나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南北으로 갈라진 家族들과 親戚, 親友들 間의 連繫를 實現하고 그들의 相逢을 마련하는 同時에 이를 실마리로 해서 南北間의 接觸과 協商을 實現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렇게 해야만 끊어진 民族의 血脈을 다시 이을 수 있을 것이며 祖國統一의 門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中央委員會의 이번 提議의 實現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南朝鮮 赤十字社도 人道主義的 原則으로부터 出發한 우리의 提議의 實現을 위해서 誠意있는 努力을 다 해야 할 것이다.

美帝와 走狗 朴徒黨은 그 어떠한 方策으로서도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우리 人民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다.

南北朝鮮 全體 愛國力量이 하나로 團合한다면 우리는 能히 南北間의 接觸과 協商의 길을 열고 互相來往과 交流를 實現할 수 있을 것이며 外勢를 排擊하고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朝鮮人民은 南北間의 障壁을 허물고 南北의 接觸과 交流를 實現하며 나아가서 民族 至上의 課業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만드시 成就하고자 할 것이다.